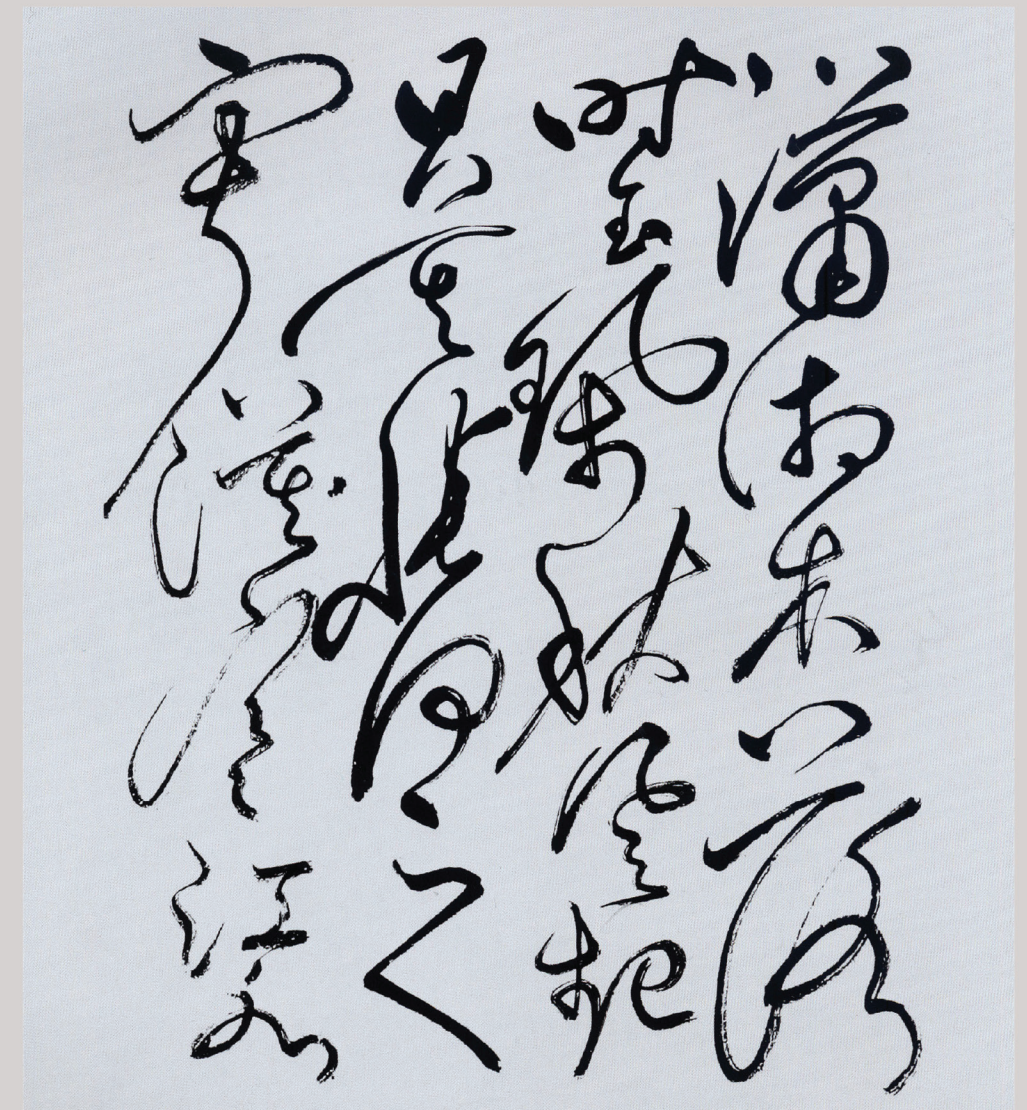


筆巖書院 山仰會報

河西先生 탄생 500주년 기념 특집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筆巖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里 377 電話 : 061-394-0833
發行人 : 山仰會長 吳仁均 編輯主幹 : 金梓洙

조선조 性理學의 전성기와 河西

筆巖書院山仰會長 吳仁均

1. 性理學의 근원

中國 北宋의 유학자인 周敦頤(1017~1073년 濂溪)가 신유학의 선구자로서 宇宙의 本體를 규명한 太極圖說을 완성하고 성리학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리고 關學의 창시자요 北宋 五子의 한 사람인 張載(1020~1077년 橫渠)가 나오고 周敦頤를 師事한 程顥(1032~1085년 諡明道) 程頤(1083~1107년 伊川伯) 兄弟가 나와서 求道에 정진 宋代 성리학의 중심인물이 되어 성리학을 중흥시켰다.

이리하여 濂溪로부터 二程子(程顥 程頤)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道統이 확립되었다.

그 뒤를 이어 南宋의 유학자 朱熹(1130~1200년)가 나와서 19세에 진사가 된 뒤 여러 관직을 지내는 동안 佛教와 老莊學을 연구하고 31세때 李延平(李侗)에게서 程子의 學統을 이어받아 白鹿洞書院을 부흥시켜 학구에 전념하였다.

여기에 朱熹(朱子)는 朱子學을 집대성하였는데 이는 周敦頤 邵雍 張載 程顥程頤 등의 학설을 계승 종합하는 한편 동시대의 佛教 道教 이론까지 섭렵하여 방대한 사상체계를 창시하였다. 그는 五經에는 비판적이고 四書를 중요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체계를 세웠으며 그

의 우주관 인성론은 주돈이의 太極圖와 張橫渠의 西銘을 程子의 理氣 二元論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같은 朱子의 학설은 周子 張橫渠邵雍 程明道 程伊川 등의 학설을 계승하여 이를 朱子가 완성했으므로 이를 朱子學이라 한다. 이는 中國 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朱子에 의한 儒學은 孔孟學의 이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더욱 체계화된 이론으로 정립되었으며 학문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유교의 道統은 孔子를 으뜸으로 삼아 顏子, 曾子, 子思, 孟子로 이어 지는데 孟子 이후 계승자가 없어 1,400餘年間 끊겨왔던 유교의 道統을 朱子가 性理學에 다시금 接木시킴으로써 유교를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朱子學은 소위 性理學 道學 宋學으로써 고려말 晦軒 安珣(安裕 1243~1306)이 1286년에 왕을 따라서 元나라 燕京에 갔다가 朱子全書를 처음으로 보고 기뻐하며 儒學의 正統이라 하여 손수 그 책을 베껴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온 후로 점차로 진흥하여 조선조 국가 건설의 지도적 이념이 되었다.

성리학이란 天理와 人性을 理氣 二元論으로 체계화하는 학문이며 원래 유교의 경전은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들로 구성된 것이었으나, 宋代에 이르러 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 체계를 부여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줄여서 理學이라고 하며 程朱學이라고도 한다)

인간 본성과 이치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성리학이라 칭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도리를 깨우친다는 의미에서 도학이라 칭한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주희를 존중한 것은 학문적 업적과 더불어 그의 학문적 자세와 삶의 태도에 있었다. 주자는 학자의 전형이며, 師表였다. 그러므로 사대부들은 주희를 가장 위대한 도학자로 존중한다. 조선의 儒者들은 尙古主義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추모하는 이상적인 인물과 시대는 당연히 堯, 舜, 禹, 湯, 文, 武, 周公,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라는 도통의 계보를 이어 그 정신의 계승을 중시하였다.

朱子는 조선의 사대부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학문과 삶의 귀감이었다. 朱子는 성현이었고 주자전서는 경전이었다.

2. 조선조 性理學의 전성기

조선조 통치이념이 된 朱子學의 도통은 고려말 安珦에 의하여 도입된 이래 東方理學之祖인 圃隱 鄭夢周(1337-1392)로부터 冶隱 吉再(1353-1419) 江湖 金叔滋(1389-1456) 佔畢齋 金宗直(1431-1492) 寒暄堂 金宏弼(1454-1504)로 이어 내려와 靜庵 趙光祖와 慕齋 金安國은 한훤당에게서 수학하면서 대도를 깨달아 도통을 이었으며, 이후 慕齋의 제자 河西 金麟厚로 조선 성리학의 도통이 이어진다.

이 시대에 서울의 趙光祖, 개성의 徐敬德, 경주의 李彦迪, 예안의 李滉, 산청의 曹植, 상주의 盧守愼, 파주의 李珥와 成渾 그리고 호남의 朴祥, 崔山斗, 宋純, 林億齡, 李恒, 梁山甫, 金麟厚, 柳希春, 梁應鼎, 金成遠, 朴光玉, 奇大升, 崔慶會, 高敬命, 鄭澈 등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다.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8년 동안 주고받은 四端七情論辯은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상논쟁이었다.

이 시대 거장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인간적 교류는 이 시대 사상사에 가장 의미 깊은 결실의 하나로 꼽을 만하며 영남 유학의 퇴계 李滉(1501-1570)과 호남 유학의 하서 金麟厚(1510-1560)는 두 축을 이루어 학문적 화려한 토론의 불꽃을 쏘아 올려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33세의 퇴계와 24세의 하서는 1533년 성균관에 유학하여 서로 깊은 친교를 맺었다. 퇴계 연보에서는 太學에서 더불어 상중한 사람은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었다 하였고 하서 연보에서는 “한번 퇴계를 보자 깊이 서로 마음이 맞아 강습하고 연마하기를 쉬지 않아 서로 돕는 유익함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깊은 우정을 쌓았는지 엿볼 수 있다.

퇴계가 태학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서는 작별의 詩를 지어 이태백과 두보의 문장 솜씨요 왕희지와 조맹부의 글씨였네 (李杜文章 王趙筆)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뒷날 함께 조정에서 벼슬을 할때 퇴계는 휴가로 고향에 가는 하서에게 지어준 작별시에서 내 그대와 더불어 태학에 유학할 때 한마디 말에 마음이 맞아 의

기투합했었지(我昔與子遊泮宮一言道合欣相得)라고 하여 오랜 우정을 확인했었다.

그 후에도 서로 詩를 次韻하여 주고받은 일이 많았었다. 河西는 1531년 22세 때 성균관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大谷 成運 花潭 徐敬德 休庵 白仁傑 林塘 鄭惟吉 등의 명사들이 同榜이며 1540년 31세때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1541년 32세때 賜暇讀書에 뽑혔는데 楸坡 宋麒壽 退溪 李滉, 錦湖 林亨秀, 寓菴 金澍, 林塘 鄭惟吉, 崔演 등이 湖堂 同輩이다. 그리고 河西가 홍문관 正字와 著作을 거쳐 34세 때 1543년 4월 홍문관 박사겸 세자시강원 說書가 되었다. 당시 세자인 仁宗은 河西의 훈도를 받으면서 스승과의 친숙함이 각별하였으며 스승을 몹시 존경하여 자신이 직접 그린 墨竹圖를 스승에게 주고 河西는 하사받은 그 그림에 題詩함으로써 君臣간의 의리를 돈독히 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하여 많은 선비들이 죽음을 당하였으나 金安國은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며, 1532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대제학(정2품)을 거쳐 1541년 좌찬성(중1품)으로서 입시하여 임금에게 조광조의 직첩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청하였으며 하서 또한 1543(중종 38)년 6월 21일 홍문관 부수찬(중 6품)으로 임명되자 笏子를 올려 풍속이 무너지는 등 실정을 비판하고 士風의 쇠신과 교화를 주장하고 아울러 기묘사화 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기묘사람들의 伸冤을 간곡히 청하였다.

기묘년에 사화의 극형을 내린 책임자는 바로 중종이었다. 다른 왕도 아닌 바로 그 중종 임금에게 기묘년의 극형이 죄가 없는 젊은 선비들에게 내린 억울한 형벌이니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으니 이는 실로 그 당시로서

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목숨을 건 확고한 신념에 찬 행동이었던 것이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한 후 1545년 4월 36세의 하서는 국장의 製述官으로서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오고 6월 조광조 등의 관작이 追復되었다. 7월에 인종이 급서하게 된다.

당시 조정은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가 仁宗을 낳고 제2 계비인 문정왕후 윤씨가 明宗을 낳았는데 이들 두 계비는 같은 파평 윤씨이며 장경왕후의 아우에 尹任이 있었고 문정왕후의 아우에 尹元衡이 있었다. 尹任(大尹)과 尹元衡(小尹)은 같은 종씨이면서 서로 國舅가 되어 세력을 잡으려고 일찍부터 반목 대립하여 왔다. 仁宗의 급서는 大尹과 小尹의 대립·갈등 속에서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小尹派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서선생은 仁宗의 師傅이다.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차기정권을 담당할 세자와 군신 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서로 경애하고 의기 투합했으며 세자에게 온갖 정성과 예지를 기울여 성군의 재목으로 길러 놓은 왕이 등극한지 1년도 못되어 재위 8개월 만에 급서하니 하서선생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조광조를 이어 다시 지치주의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그의 정치적 이상과 대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며, 희망에서 절망으로 극변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이에 河西는 병을 핑계 삼아 모든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후진 양성과 道學 연구에 전념하였다.

낙향 후 여러 관직의 임명이 있었지만 일체의 벼슬을 거부하고 매년 7월 초하룻날이면 집 앞

의 卯山에 올라 하루종일 통곡하고 인종에 대한 추모의 정을 잊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不事二君의 의리를 지킨 절의 행위이다. 선생은 1548년 39세時 淳昌 鮎巖村에 우거하면서 栢芳山 아래 靈江물가 松蘂洞에 訓蒙齋를 짓고 월계 趙希文, 고암 梁子澂, 송강 鄭澈, 금강 奇孝諫, 호암 卞成溫 등 많은 제자들과 강론하였으며, 특히 訓蒙齋 앞 靈江가에 있는 盤石 위에서 河西는 정철 등 門人들과 이곳에서 大學를 강론하였는데 이 바위를 大學巖이라고 이름하여 새겨져 있으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보존되어 오고 있다.

河西의 문학작품으로는 1600수의 방대한 詩賦를 남겼으며 俛仰亭 瀟灑園을 중심으로 한 湖南歌壇의 중추적 존재였다. 선생은 道學을 숭상했기 때문에 道를 文으로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선생의 문장이 깊다는 것은 그 道가 그만큼 심도가 있음을 말한다. 특히 詩作 활동을 하던 明宗朝 前後 湖南의 宋純을 中心으로 한 俛仰亭 詩壇과 林億齡 梁山甫 金成遠 등을 中心한 星山詩壇이 대두되어 서로 쌍벽을 이루어 호남가단을 발흥시켰다. 담양군 봉산면 제월봉 밑에 있는 俛仰亭의 경관은 宋純과 이 亭子에 오고간 많은 文士 들의 詩文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중 宋純의 俛仰亭歌와 면양정 단가를 비롯하여 林億齡, 金麟厚, 高敬命, 朴淳 등의 각 면양정 三十詠은 특히 유명하다.

한편 星山洞에는 一洞三勝으로 알려진 息影亭, 環碧堂, 瀟灑園 등이 있어 여기에서 宋純과 河西는 물론 金允悌, 梁山甫 등 많은 선비들이 교육하며 星山詩壇을 형성하고 金成遠 高敬命 林億齡 鄭澈 奇大升 등 多士들이 뒤를 이어 그 발전을 크게 꾀하여 왔다. 식영정을 비롯한 환

벽당 소재원은 조선시대 文人들의 出入이 잦았던 열린 공간이었으며 여기에 出入한 인물은 李滉 李珥를 비롯하여 蘇世讓 白光勳 宋翼弼 柳希春 吳謙 등 많은 선비들이 있었다. 石川 林億齡이 息影亭있는 星山洞의 勝景을 스무 가지로 읊은 詩 즉 息影亭 20詠이 있으며, 河西 金麟厚가 지은 瀟灑園의 48勝景 전모를 들어 읊은 詩인 瀟灑園 48詠과 俛仰亭 30詠은 무등산 자락에서 이루어진 樓亭文學의 걸작으로 소재원(星山) 시단의 흥성을 일게 한 대표작이다.

소재원 48詠중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千竿風響)에서 대나무가 높이 자라서 대나무 위 부분이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니 이 소리를 仙界의 음악으로 듣는다 하였으니 河西는 소재원 48詠에서 자연과 인생의 모든 道를 포함하여 詩로 여과시키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國文詩로 時調 3수가 전해오는데 悼林士冤死歌 1수 자연가 1수 白鷗歌 1수가 바로 그것이다. 退溪는 陶山 12곡 12수를 짓고 栗谷은 高山九曲歌 10수를 지은바 있는데 당시 漢詩文 제작에 치중하던 道學者들로부터 國문詩가 전하여짐은 매우 의의 있는 일로 평가된다. 松江 鄭澈은 가사의 걸작으로 일컫는 星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을 비롯하여 將進酒辭 등 많은 시조를 제작하여 國문학상 대표적인 시가 시인으로 칭송되고 있으며 가사문학의 大家인 시조의 孤山 尹善道와 더불어 한국 시가사상 쌍벽으로 일컬어진다.

이와 같이 俛仰亭과 星山洞 三勝을 통하여 당시 名士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河西와 더불어 詩를 쓰고 노래하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宋純, 梁山甫, 金允悌, 林億齡, 金成遠, 朴祥, 梁應鼎, 朴淳, 奇大升, 鄭澈, 高敬命,

白光勳, 崔慶昌, 林悌 등 조선조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모두 河西선생과 교유나 문인으로서 호남의 문학을 발전시킨 인물들이다.

河西 문집 『서술』에 河西가 어렸을때 俛仰亭 宋純에게서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조의 詩歌를 대표하는 鄭澈은 河西에게서 “大學”을 배웠다. 여기에 俛仰亭과 河西 그리고 松江으로 이어지는 조선조 詩 문학의 큰 산맥을 여기에서 보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때 河西는 호남 詩壇의 중추적 인물로서 한국 문학사에 功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河西의 詩는 일찍부터 선비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조선조 中期의 名臣인 李睟光(1563~1628)은 자기 저서 芝峰類說에서 조선조 전기 詩壇 인물을 평하여 朴祥, 林億齡, 林亨秀, 梁應鼎, 朴淳, 崔慶昌, 白光勳, 林悌, 高敬命 등 당대의 명시인과 함께 河西를 칭송한 바 있다.

이상 名詩人十傑 가운데 朴祥은 河西가 師事하였고 그 외의 명사들도 호남의 두 詩壇에 출입하면서 河西와 詩的 交遊를 빈번히 하였다. 河西集에서 전하는 師友 20余名과의 交遊詩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유달리 풍부한 詩情을 주었던 명시인은 다음과 같으며 宋純 39수 林亨秀 17수 盧守愼 16수 梁山甫 80수 柳希春 31수 南彦紀 26수 趙希文 64수 梁子澂 50수 柳景濂 62수 그외에 朴祥, 林億齡, 梁應鼎, 朴淳, 林亨秀 등의 교유시도 河西集에 전해지고 있다.

3. 河西와 文廟配享

河西는 天地 중간에 두 분이 계시니 仲尼(孔子)는 원기라면 紫陽(朱子)은 참이시다(天地中

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라는 詩를 지어 추앙함으로써 孔子에서 朱子에 이르는 성리학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으며, 鄭夢周 吉再 金叔滋 金宗直 金宏弼 金安國 金麟厚로 이어지는 조선성리학의 도통을 이어받은 직계이다.

正祖께서는 河西의 학문을 한마디로 해동의 濂溪(周敦頤)요 호남의 洙泗(孔子)라고 찬사를 보냈으며 이로서 河西를 유학의 宗匠으로 하여 호남의 儒學이 꽃피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河西에 대한 국가적 추앙사업은 西人이 집권한 孝宗때부터 시작되어 1659년 그를 제향하는 서원에 筆巖이라는 額號를 내리고 賜額하였으며(효종실록) 실제 사액은 166년에 이루어졌다.

1668년에는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1669년 文靖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현종실록) 1682년에 西人의 영수인 尤庵 宋時烈이 河西의 神道碑銘을 지었는데 여기에 道學 節義 文章을 겸전한 이는 바로 河西뿐이며, 동방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1786년 8월부터 八道 유생들이 河西의 문묘배향을 요청하고 나섰으며, 그 상소 요청은 무려 10년 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文廟에 올려 배향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典禮이며, 국가적 대사였던 것이다.

1610(광해군 2)년 五賢이 종사될 때에 大北派의 領袖이며, 權臣인 鄭仁弘(曹植門人)의 비판에 李滉이 출척되고 曹植이 종사되었다가 다시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그 후에도 成渾, 宋時烈, 朴世采 배향 시에도 일부 반대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본인의 행적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문묘배향이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묘배향은 八道 선비들의 고른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河西 문묘배향의 경우는 첫째 도학자로서 깊은 학문과 己卯名賢에 대한 伸冤 주장 등의 의리 실천으로 전국의 선비들이 河西를 士林의 대표격으로 숭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비사회의 반대론이 전혀 없었으며 둘째 君師의 위치에 있는 正祖가 문묘배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河西를 숭모하는 正祖의 논리에 타의 異論의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河西는 正祖의 율허를 받아 문묘에 배향하게 되었는데 문묘배향과 더불어 이조판서를 영의정으로 추서하고 이해 10월 16일에는 文靖이라는 시호를 文正으로 바꾸도록 하고 1796년 11월 6일 正祖는 성균관 문묘에 가서 정식으로 河西 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하는 의식을 치르고 교서를 선포하였다. 우리나라 역대의 선비들 가운데 師表가 된 인물로서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은 동국 十八賢이다.

正祖(在位 1776~1800)는 선왕의 뜻을 이어 탕평정치를 펼쳤으며, 성리학을 正學으로 수립하여 文風과 풍속을 바로 잡으려 했으며 왕실 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할 뿐 아니라 각종 문화 사업을 실시하여 文運의 부흥시대를 이루었다. 또한 학문이 우뚝 선 학자군주였으며 통치권인 君道와 스승인 師道를 겸비한 이른바 君師의 초월적인 聖人君主像을 가진 임금이었다. 그리고 지극한 正祖의 효심은 온 백성의 師表가 되었으며 수원에 華城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획기적인 치적을 많이 남겼다. 이 화성은 오늘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였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를 중흥시키고 君師의 위치에 있는 聖君에 의하여 河西선생이 유일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며, 문묘에 배향된 조선조 14先正 가운데 학자군주인 正祖에 의해 선택된 하서의 위상은 특별한 명예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筆岩書院 山仰會員은 물론 선생을 숭모하는 모든 선비들이 河西선생의 學德을 기리고 선생을 追仰하고 천양하는데 공지를 가지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집성관)

7쪽에서 이어짐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5백년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물질만큼 성숙하고 발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황폐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서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선조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노력에 의해 다가오는 5백년간 정신적으로 큰 성숙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올 가을에 하서 문화 축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모두 다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10.22)

축 사

김양수 장성군수

장성군수 김양수입니다.

하서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문화 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비의 고장 장성을 찾아주신 전국 각지의 유림 장성군수 김양수입니다.

하서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문화 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비의 고장 장성을 찾아주신 전국 각지의 유림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올립니다.

잠시 전에 약사 소개에서 들으신 대로, 하서 김인후선생께서는 5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 50년의 열 배인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선생의 명성이 자자하고 추앙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선생의 관직이 높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상 선생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신 분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생의 문종이 별죽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생의 본손입니다만, 울김은 수적인 면에서 대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서 선생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당대는 물론 후손들의 귀감이 될 만한 선생의 위대한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 이래 많은 분들이 하서 선생의 뛰어난 점으로 도학과 문장과 절의 세 가지를 손꼽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자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점은 절의라고 생각합니다. 절의를 첫손에 꼽고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학과 문장은 아무나 하서 선생의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심오한 학문과 주옥같은 글은 학자나 문인들에 의해 계승 발전돼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개와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절의는 각계각층 누구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서 선생께서 몸소 행하신 절의는 단순히 불사이군 차원의 개인적 신조가 아니었습니다. 옳지 못한 불의한 세력에 맞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려는 의로운 정신과 깨끗한 태도였습니다.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않고 대의명분을 중시했던 진정한 선비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서 선생은 왕조 시대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6쪽 박스로 이어짐

祝辭

朴泰根(光州鄉校 典校)

菊花香氣 그윽한 結實의 季節에 이곳 유서 깊은 光州鄉校에서 河西 金麟厚先生 誕生 五百周年 紀念 學術講演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行事를 위해서 物心兩面의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蔚山金氏 宗中 金鎮雄 도 유사님을 비롯한 關係者 여러분께 깊은 敬意와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今年은 蔚山金氏 宗中은 물론이요 舉國的인 차원에서 靑史에 길이 빛나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河西先生 誕生 五百周年이 되는 해이며 筆岩書院의 聖域化 事業이 웅장하게 完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先生의 雅號를 딴 河西路 道路名이 指定되어 지난 2月 河西路 표식식 제막식을 갖는 등 실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河西先生은 湖南에서 유일하게 文廟에 配享되시어 湖南에 환하고 밝은 빛을 밝혀 주신 분으로 이 고장 儒林의 矚目요 師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正祖大王은 先生에게 東方의 朱子요 先行後知 直內方外의 學問 또한 第一人者라고 極讚하였다 합니다.

이처럼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두루 갖추시고 大賢人이신 先生의 高潔한 人格과 節義精

神을 追慕하고 紀念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河西先生 誕生 五百年을 紀念하는 學術大會를 開催하고 이어서 오늘 光州大會도 질 높은 學術講演會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22日 長城에서 대대적으로 開催된다 하니 참으로 경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시도민은 물론이요 거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儒林諸賢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김진웅 도유사님과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수준 높은 강의를 맡아 수고하실 전주대 오종일 교수님과 성균관대 서경요 교수님, 이기동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하서 선생의 시

진무기 첩의 박명에 차운하다
(次韻陳無己妾薄命)

갈려 사니 산과 바다가로 막히고
아스랄다 길은 멀어 천리로구려.
처음 말은 잠깐 서로이별일러니
손꼽아 헤아려 어느덧 삼년.
한번 가서 돌아올 줄 끝내 모르니
푸른 풀은 봄 언덕에 돌아나누나.
그림처럼 그어진 저 원산미(遠山眉)
시름 엉켜 옛날의 지태 아니고.
거문고를 통저도 가락 못 이뤄
목메이는 얼음 속의 샘이로구려.
사람도 없어지고 줄도 끊기니
맷소사 뉘가 다시 어여베 여길는지

離居隔山海, 迢遞路逾千.
始言暫相別, 屈指成三年.
一去竟不返, 綠草生春阡.
宛轉遠山眉, 凝愁非舊妍.
撫琴不成調, 幽咽永下泉.
人亡絃亦斷, 已矣復誰憐.

기이(其二)

비녀 뒤향 검은머리 눈이 깃들고
거울 가 붉은 얼굴 향이 가셔라.
어느 때나 그칠건고 이 한 가지 한
천지도 가노라면 종(終)이 있는데.
취량하다 외길 걸기 맹서한 신세
이디지도 궁핍까 슬픈내 운명.
선비는 지기(知己) 위해 죽는 거라면
계집은 애인 위해 모양낸 다네.
하루 저녁 봄비람이 불어오면은
온갖 새 울며 서로 따라 가는데.
유독 나는 제 첩에 나지 못하여
시름에 찬 가을벌레 되었네 그러.

雪侵釵後綠, 香歇鏡邊紅.
一恨幾時已, 乾坤會有終.
悽悽矢靡他, 慘慘哀命窮.
士向知己死, 女爲悅己容.
春風一夕起, 百鳥鳴相從.
獨妾生不辰, 掩抑作秋蛩.

반죽사(斑竹詞) 一本에는 『애이비사(哀二妃詞)』로 되어 있음

중동(重瞳)의 옥수레는 한번 가서 아니 오니

구의산(九疑山) 참담하다 아득히 비끼었네.
 애통하는 저 이비(二妃)는 호올로 어찌하리
 떠나가도 못 미쳐라 속절없이 애만 끊겨.
 하늘 향해 슬피 울어 피눈물이 쏟아지니
 한 줄이라 두 줄이라 천만 줄이 다할손가.
 남은 밤을바람 불러 긴 숲에 흠뻑이니
 숲 밖의 밝은해는 차거워라 빛이 없네.
 녹죽이 쉽사리도 옛 모습을 잃었으니
 푸른임랑(琳琅) 갑자기 대모(玳瑁)로 바뀌어라.
 귀신은 파람하고 잔나비 물어대라
 한가닥 깊은원한이 가운데 숨었구려.
 묵은 뿌리 죽순 나고 죽순은 대가 되니
 아롱다롱 모두가 눈물 자국 띄었구만.
 구천(九泉)에 만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서
 시름구름 차운 비는 소상강(瀟湘江)에 자욱하리.
 산 험리고 물 끊겨도 원망은 그대로라
 이제에 이르러도 부용(芙蓉)치마 방불하이

斑竹詞【一本 作哀二妃詞】

重瞳一駕去不返, 九疑慘淡橫蒼茫.
 哀哉二妃獨奈何, 追之不及空斷腸.
 啼將血淚向青天, 一行二行千萬行.
 風吹餘點灑長林, 林外白日寒無光.
 居然綠竹失舊容, 玳瑁忽換青琳琅.
 鬼嘯猿啼萬萬古, 一脈幽冤比中藏.
 陳根生笋笋成竹, 斑斑盡帶雙涕滂.
 相隨九泉未可知, 愁雲冷雨迷沅湘.
 山崩水絕怨不滅, 至今彷彿芙蓉裳.

기이(其二)

창오산(蒼梧山) 구름 높고 구의산(九疑山) 우

뜩한데
 沅水是 넘실넘실 청상(淸湘)으로연땀구려.
 중동(重瞳)의 외론 무덤 모를래라 어디런지
 기도(冀都)는 아득아득 저 하늘 한구석에.
 회화(羲和) 끝내 남쪽으로 수레를 못 돌리니
 몸부림도 못 미쳐라 娥皇女英 슬프구려.
 서로 잡고 소매 돌려 깊은원한 맺혔으니
 곡성이 높이 솟아 하늘을 찢러대네.
 눈물 닳고 몸은 말라 피가대를 물들이니
 만년이라 슬픈 냇은 부질없이 서성거려.
 소슬한 긴 수풀에 안개비 어둑한데
 이십 오현 비파소리 억양을 맞추누나.
 어옹(漁翁)이라 시객들 강 위에 당도하며
 귀 슬프고 뼈골 시고 애간장 무너지네.
 슬픈 바람 으시으시 흰 원숭이 물어대니
 천지도 장구(長久)천만 끝끝내 아득아득.
 무정하다 저 물은 동으로만 흘러가니
 이비(二妃)의 원한과 어느것이 길고 짧나.

蒼梧雲晚九疑高, 沅水蕩汨連淸湘.
 重瞳孤墳不知處, 冀都漠漠天一方.
 羲和竟未返南轅, 攀呼不及悲英皇.
 相將反袂致幽冤, 哭聲直上千穹蒼.
 淚竭身枯血染竹, 哀魂萬古空徊徨.
 脩林蕭瑟煙雨昏, 二十五絃聲抑揚.
 騷人漁子到江上, 惻耳酸骨摧心腸.
 悲風颯颯白猿啼, 天長地久終茫茫.
 無情唯有水東流, 二妃怨恨誰短長.

외구(外舅)의 집에 자로새가 날아나간 일
이 있자 그 새가 다시 멀리 날아갈까 염려
되어 날개와 깃을 잘라 버렸는데 그것을
보고 느낌이 있어 짓다

강해(江海)에서 출생한 새가 있으니
날개가 보통새와 다르군 그래.
위에선 현학(玄鶴)과 무리가 되고
아래선 황곡(黃鵠)의 뒤를 따르네.
깨끗한 뉘 가려서 음탁(飲啄)을 하고
물가를 의지하여 깃드는구려.
목욕 뒤엔 햇볕에 깃을 다듬고
멀리 서서 교만스레 모양 뽐내네.
마을 사람 돈 벌이를 좋아하기로
잡아다 높은 집에 팔아넘기니.
깃과 털은 반이나 꺾여 빠지고
먹이는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해.
진흙 속의 개미 벌레 주어 먹으니
그따위 것 본성에 맞을 리 있나.
이따금 하늘 향해 울어대면은
옛 짝들 소리 듣고 서로 안다네.
머리를 쳐 들고도 날지 못하니
외로운 얹매임이 가없다마다.
술상엿을 나죽히 맴돌아 들어
귀 기울여 풍악소릴 듣기도 하네.
풀잎을 입에 물고춤을 출 때는
자세가 어찌 그리 의젓도 한지.
하루아침 억센 날개 돌아났다서
한번 펼쳐 일어나는 회오리바람.
기운 펼쳐 넓은 들로 날아만 가니
아이들이 뒤를 쫓아 달음질 하네.
얼마를 못가도로 몰아들이니
또 다시 그물 속의 신세 되어라.

깃털을 드문드문 잘라버리니
가련타 네 간단들 어디로 가리.
제 몸을 제 뜻대로 못 갖는 설음
돌아보면 이 어찌 네만이겠나.

外舅家有鷦鷯 飛出, 慮其復遠舉
剪翹羽 見而感之有作

有鳥出江海, 雲翼殊凡姿.
上與玄鶴羣, 下有黃鵠隨.
飲啄取潔淨, 栖息依清涯.
浴罷刷晴景, 迴立整容儀.
村人喜賈貨, 掩致高軒墀.
羽毛半摧落, 稻梁未充飢.
泥間拾蟲螻, 雅性豈其宜.
有時叫青霄, 舊侶聲相知.
仰首不得飛, 戚戚聞孤羈.
低徊尊俎側, 傾耳彈朱絲.
銜草或戲舞, 舉止何委蛇.
一朝勁翮生, 扇搖驚颺吹.
忽奮度曠野, 追隨走童兒.
居然委驅逼, 復爲塵網縈.
剪翎不使去, 憐哉何所之.
有身未自任, 顧爾非獨癡.

삼가 豊基 先生에게 올림
(퇴계(退溪)가 풍기군수로 되었을 때)

오래전에 한 젊은 벗으로 인해
성화만 듣고 아직 못 보았더니.
성 안에서 우연히 이웃이 되어
인사를 드린 적이 겨우 두어 달.
훗날 솔과 학의 모습으로서

세상 맛은 일체 다 벗어던졌네.
 일휘(一麾)의 고을살이 산수 좋은 곳
 가변 바람흰 수염을 드날리누나.
 한강이라 증류에 노 저어 가다
 고개 돌려 대궐을 그리워 하네.
 죽령(竹嶺)이 아스라이 안계(眼界)에 드니
 한번 가자 소식(音塵)이 동떨어져라.
 백성들 그야말로 기대가 크니
 수레 내려 굶주림을 구제해 주고.
 웃음으로 부서(簿書)를 지휘해 가니
 송사(訟詞)도 서로간의 고알(告訐)이 없어.
 남은 일은 단지 읍고 노래하는 것
 초연히 맑은 숲을 마주대 하네.
 바리봐도 더위잡을 길이 없으니
 병그러진 초(楚)·월(越)을 시름합니다.

敬呈豐基先生(退溪任豐基時)

昔年因友生, 聞風阻趨謁.
 城中偶卜隣, 拜面才數月.
 軒昂松鶴姿, 世味甚抹撇.
 一麾山水郡, 輕颺振華髮.
 蕩槳漢中流, 回頭戀丹闕.
 竹嶺遠在望, 去去音塵濶.
 蒼生政顛仰, 下車救飢渴.
 簿書笑指揮, 詞訟無相訐.
 餘事只吟嘯, 超然對清樾.
 悵望不可攀, 睽携愁楚越.

동지(冬至)

몸이 덜덜 떨리도록 천지가 추우니
 궁음(窮陰)이 바야흐로 폐장(閉藏)한 때일세.

가회(?灰)가 양관(陽管)에서 피어오르니
 하룻밤에 생의(生意)가 움직이누나.
 조화의 기틀은 이렇듯 왕성하지만
 오묘한 곳은 말로 하기 어렵네.
 신공(神功)이 만상(萬象)을 부추기니
 단서(端緒)가 보일 것도 같네.
 살펴보면 잠깐 사이 이해할 듯하지만
 가만이 생각해 보면 도(道)와 기(器)를 알 수
 없으라.

음과양이 서로 오르내리니
 지극한 이치 어찌 떠나있으랴.
 묘합(妙合)하여 본래 틈이 없으니
 진정(眞精)은 거짓이 없는 것이네.
 돌고 돌아 만고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나아갈 곧바로 이루어내네.
 유행하여 언제고 쉬지 않는데
 일정한 분수는 상위(常位)가 있네.
 낱고 낱아 모두 기르려고
 곳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었네.
 대단하다 천지의 마음이시어
 만물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다르지 않네.
 성인(聖人)은 만물의 으뜸이요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이라.
 생각하고 생각하여 끊임없도록 경계하니
 공경하고 방자(放肆) 사이에 기미(機微)가 달
 렸네.

광명을 이어받아 대본(大本)을 세워
 가만히 만시에 응해 나아가네.
 선(善)의 단서가 저절로 이어져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나라 일이 저절로 잘 다스
 려지네.

지성이란 통하지 않는 곳 없으니
 서리 이슬 내리듯 모든 곳에 미치네.

河西 金麟厚先生 道學思想의 本領과 現代的 意義

柳承國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성균관대 명예교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河西 金麟厚 先生의 탄생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선생의 도학사상의 본령과 고결한 삶의 자취를 국제적으로 照明, 宣揚해야 한다는 諸賢의 뜻을 모아 국제학술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선생은 도학자로서 己卯 名賢의 伸冤을 이루어 國是를 바로잡고 道統을 이었을 뿐 아니라, 고결하기 그지없는 出處와 文章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春秋左傳」에서는 立德, 立功, 立言을 선비의 三不朽라 하였거니와 선생이야말로 이에 부합하는 선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보과학의 혁명적 발전은 지구를 압축하여 한마당의 인류공동의 광장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 지구상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적인 자기중심적 국수주의나 패권주의는 도도하게 흐르는 세계사적 대중화의 물결과 합리적 정신을 막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쟁하는 강대국 사이에서도 국제협력과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방과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의 실리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孟子가 말한 바 “上下交征利”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利欲의 마음을 제거한다면 모든 활동은 정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패권이익 경쟁시대에 있어서 그 많은 종교와 종교인은 현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기에 미약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많은 종파들이 동참하여 인류와 사회를 지극히 걱정하고 이에 대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긴요하고 절실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利欲을 근본으로 하여 자유경쟁과 투쟁과 승리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어 현대인과 현대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릇 모든 종교는 그 본질이 人間以上の 절대자에 근본한 것이요, 현실적 利慾과 實利의 추구는 그 根本이 경제적 물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周易』에서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로 親하고,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와 親하여 각기 그 종류를 따른다.”라 한 바와 같이

종교는 하늘(天·神·佛)에 근본하고 물질은 땅에 근본하여 二律背反의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종파들이 자기 종교의 특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기로 하면 끝없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의 논쟁이 아니라, 그 종교가 사회와 인류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현실적 인간사회에 대하여 착하고 복된 감화를 주려고 하는 데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物質도 중요하지만, 그것은人間을 위한 物質이어야 하며, 물질과학으로 인하여 인간이 度外視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물질은 얻었으나, 인간을 잃은 점이 큼니다. 이와 반대로 종교에 있어서는 인간이상의 절대자를 추구하는 神은 있어도 인간이 神에 종속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天·地·人三才 中에 人間이 疎外되고 상실된 것이 현대사회의 一大病理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문명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화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彼岸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인간 속에 내재하여 聖神, 佛性, 天命이 役事하고, 경제적 財貨가 인간에게 제공되어 인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어 마침내 神人相和하고 靈肉完全한 인간관 창출이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는 정신과 물질이 中和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 인간상이 요청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모든 종파들의 彼岸이 현재 此岸으로부터 떠나감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으로 내

재화하여 나의 마음 깊은 속에서 神意를 體察하고 自得·自覺해야 할 것입니다.

孔子는 인간의 心性에 깊은 본질은 서로가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吾道一以貫之”라 하였으며, “性相近, 習相遠”이라 하여 인간의 氣質과 풍속과 제도와 사회역사는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과 문화의 차이와 민족의 특성은 있을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 즉 궁극적 自我를 유교에서는 ‘人極’이라고 합니다. 하나 凡人들은 흔히 자기 속에 있는 ‘人極’을 일상생활 속에서 은폐하여 자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非本來的인 自我를 탈피하고 人極을 확립한다고 하면, 이는 自己의 主體인 동시에 萬人の 主體인 것입니다. 이를 “立人極”이라고 합니다. 그 人極에 이르는 것이 다름 아닌 人間同質性的의 회복이요, 궁극적 唯一者를 만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異而同’한 一本說인 것입니다.

周濂溪는 「太極圖說」에서 無極과 太極을 真理의 根源으로 논술하고, 太極의 理致는 오직 聖人이 中·正·仁·義로써 人極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萬物의 太極보다 人心 中の 太極, 즉 真理의 主體性인 人極을 강조한 것이 河西 金先生의 「天命圖」입니다. 太極의 眞理가 圓融無碍하여 더할 나위 없는 것을 일컫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같은 推象的 原理는 구체적 現實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陰陽相對의 구체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즉 現象的인 “所然의 事物”에서 생생하게 그 “所以然之理”를 認識·理解·體得하는 것입니다.

東洋思想에는 정치의 삼대원리가 있으니 正德, 利用, 厚生이 그것입니다. ‘이용’은 물질이 풍요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후생’은 인간의 생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며 사회적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민주 사회복지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덕’의 차원입니다. 동양 재래의 사상은 ‘정덕’을 중히 여기고, ‘이용’, ‘후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實學派들은 ‘이용’, ‘후생’을 통하여 ‘정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때에 따라 우선 순위는 있지만 三者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원리를 철학적 人間學으로 分析·綜合한 이론의 극치가 金河西先生(1510~1560)과 李栗谷先生(1536~1584)의 性理說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근대화의 목표는 첫째,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요, 둘째, 정치적·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셋째, 사회복지제도가 원만하게 마련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진국형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모순된 諸問題들은 동양의 인간관에서 말하는 ‘정덕’을 갖지 않는다면 그 모순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인의 지혜인 동시에 우리 인류의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여 인간이 존중되는 평화세계를 건설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철학적으로 말하면 陰陽合德, 理氣의 不雜·不離인 理氣之妙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河西 金麟厚先生이 그 本領을 開創하였고, 栗谷 李先

生이 完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朝鮮朝 第二十二代 正祖大王이 河西 金先生에 내린 御製賜祭文에 “文成四七 蓋公先覺”이라 하였으니 文成公 栗谷의 四七論(理氣四端七情論)의 大體는 文正公 金麟厚先生이 먼저 깨달았다고 한 것입니다.

栗谷先生은 『聖學輯要』에서 “물을 구하는 자가 그 근원을 찾는 것은 물을 뜨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그 물을 버리고 뜨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열매를 먹으려는 자가 반드시 그 뿌리를 배양하는데, 그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먹을 지경에 이르러 도리어 그 열매를 버리고 먹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인가? 마찬가지로 행동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性理를 정밀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성리를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행동을 불문에 부친다면 무엇 때문에 성리학은 공부하는 것이나? (慈溪黃氏語)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河西 金先生과 栗谷 李先生의 性理學的 道學思想은 조선조 후기 민족사 전개에 있어 兩大學派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西勢東漸과 日本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民族自主意識의 춘추정신으로 발전하여 斥邪衛正 獨立烈士로 발전하였으니 尤庵 宋時烈(1607~1689)로부터 華西 李恒老(1792~1868)를 위시하여 金平默, 柳重教, 崔益鉉, 柳麟錫, 高興善, 金九, 安重根 등 독립 애국열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民族自強을 위해 實學派가 형성되었으니, 그 대표를 말하면 芝峰 李瑋光(1563~1628), 礪溪 柳馨遠(1622~1673), 星湖 李瀾(1681~1763)

으로 계승되어 발전한 것입니다. 이 의리학과
와 실학파의 근원을 소급하면 河西와 栗谷의
性理哲學에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사상과 삶은 人類文明史에 一
大轉換을 이루어야 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
여 成熟한 人間, 成熟한 社會를 이루기 위해
크게 공헌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 뜻 깊은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해주시는 中國人民大學 孔
子研究院長 張立文 교수를 비롯한 國內外 碩
學 여러분과 이 자리에 동참해주신 內賓, 學
者 여러분에게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2010년 10월 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사친-사친의 연결구조

禮記의 哀公問篇에서는 “어진 사람이 어버
이를 섬김은 하늘을 섬김과 같고, 하늘을 섬
김은 어버이를 섬김과 같다”(仁人之事親也,
如事天, 事天, 如事親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
하여, ‘사친’과 ‘사천’의 긴밀한 연관성을 언
급하였는데, 여기서 다산은 ‘사친’과 ‘사천’
이 하나의 연관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해명하
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산
은 “하늘을 아는 것이 자신을 닦는 근본이
니, 이미 하늘을 안다면 곧 어버이를 섬겨서
자신을 닦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자신을
닦는 근본으로서 하늘을 알 것(知天)을 요구
함으로써 인간의 자기실현은 하늘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
을 닦는 방법으로서 어버이를 섬길 것(事親)
을 제시함으로써 ‘事親 - 修身 - 知天’이 연
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
는 ‘사친’과 ‘사천’을 실천 과정에서 연속된
것으로 파악하여, “군자의 학문은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하늘을 섬기는 데서
마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사친’과
‘사천’의 사이는 실천과정에서 보면 ‘사친’
이 시작이 되고 ‘사천’이 종결이 되지만, 성

립구조에서는 ‘사친’이 근본이 되고 ‘사천’
이 현상이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다산은 인간이 하늘과 마주하여 하
늘의 명령을 받고 하늘의 감시를 받는 관계
에서 ‘수신’과 ‘사천’의 연관구조가 지닌 성
격을 도덕성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는 “하늘
이 사람의 선과 악을 살피는 방법은 항상 인
륜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신하고 사천
하는 방법은 또한 인륜으로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인륜의 도덕성을 하늘이 인간을
살피고 판단하는 기본조건으로 강조하고, 인
륜의 실현을 통해 ‘수신’도 하고 ‘사천’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륜
의 기본과제로서 ‘사친’은 ‘사천’을 하는 방
법이 되고, 신앙적 태도로서 ‘사천’은 ‘사
친’의 인륜을 실천해야 하는 근원이 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다산은 ‘사친’의 인륜을 실천과제
의 출발점으로서 강조하면서 인륜의 실천
원리로서 ‘서’(恕)를 중시하여, “옛 성인이
하늘을 섬기는 학문은 인륜을 벗어나지 않
으니, 곧 ‘서’(恕)라는 한 글자로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늘을 섬길 수 있다”고 언급
한다.

〈琴堂泰저 「한국유교의 과제」에서

河西 金麟厚의 性理學 特色

張立文

(中國人民大學孔子研究院院長, 國學研究院院長)

1. 《天命圖》의 비교

김인후의 『天命圖說』은 다섯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天道는 深遠廣大하고 無極無限하며 高大光明하고 그의 本然之妙와 生生之理는 영원히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며 廣博深厚한 만물을 化生하는 운동변화의 운동에너지(動能)를 가지고 있다. 둘째, 天道가 만물을 化生할 수 있는 까닭은 陰陽 二氣을 싣고 있기 때문이며, 陰陽 二氣가 “動과 靜이 서로 어울려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命이 윤행하여 끊이지 않는다.” 음양이기는 天道가 만물을 化生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質料가 되고 음양 자체는 운동적이므로 天道의 乘載도구가 되어 변화하고 운동할 수 있다. 셋째, 天道는 陰陽 二氣로 말미암아 만물을 化育하고 만물은 각각 性命을 바르게 하며 서로 윤통하고 서로 해치지 않는다. 小德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大德은 敦厚無窮하여 만물을 化育하며 이것이 바로 天道가 위대한 까닭의 도리이다. 하지만 사람은 形氣의 사사로움에 속박되어 이 도리를 體知할 수 없다. 오직 형기의 사사로움을 변경하고 개조해야만 이 위대한 도리를 體認할 수 있다. 넷째, 오직 聰

明叡智하고 至誠無息한 聖人이아말로 그 사이의 움직임의 기미를 省察할 수 있고 天地萬物을 參贊 化育하는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 다섯째, 天地萬物을 參贊 化育하는 경계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過不及이 없는 “中”을 빌려야 한다. 그래서 김인후는 〈天命舊圖〉와 〈天命新圖〉의 “敬”을 핵심으로 하는 것을 “中”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고친 것이다. 이 중 대한 개변은 양자 사이의 認知理性과 價值觀念의 차이를 체현하였다. 敬은 形而下的 存養하는 工夫이고 主一을 敬이라고 이른다. “中”은 未發이고 “天下之大本”이며 和는 天下之達道이다. “中과 和를 지극히하면 天地가 제자리를 잡고 萬物이 잘 길러진다.”(中庸章句第一章). “中이란 天下의 正道이다”(中庸章句第一章). 中은 形而上的 본체이다. “中“과 “敬”은 本體와 工夫의 구분이 있다. 비록 分殊가 있지만 宋明의 理學家들은 本體와 工夫를 對待的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相輔相成한 것이며 “체와 용은 근원이 같고 드러남과 미세함이 無間하다. (體用一原, 顯微無間)”고 하였다. 王守仁 등에 이르러 本體가 곧 工夫라고 여겼다. 그러나 김인후는 주자학자로서 本體와 工夫는 形而上과 形而下的 구별이

있고 또한 서로 의지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不離不雜이라고 여겼다.

II. 理氣의 不離不雜

김인후의 『天命圖說』에서 이미 生生之理와 陰陽動靜의 화제를 논술하였고, 〈天命舊圖〉와 〈天命新圖〉에서도 四端七情의 理氣單向發의 화제를 의논하였으므로 理氣는 조선조 성리학의 핵심화제이고 시대정신의 체현임을 알수 있다. 송명리학 이론사유의 논리적 구조 중에서 理와 氣, 太極과 陰陽, 道와 器는 기본 상으로 상대적 동등 가치의 범주이다. 조선조는 기본적으로 이 이론사유를 계승하였다. 김인후가 49세 때에 奇高峰이 李恒을 방문하여 『太極圖說』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항은 “太極陰陽爲一物”을 주장하고 고봉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종일 의문점을 변론하고 歸一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봉은 김인후를 찾아가 하루 종일 강론하고 열렬하게 토론 연구하였다. 다음 해 이항은 고봉에게 편지를 보내 김인후에게 편지 속의 “極論太極陰陽一物之意”를 대신 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金氏의 “與李一齋書, 論太極陰陽一物之非”가 있게 되었다.

“理와 氣가 혼합하여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온갖 것이 그 속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는 동시에 각기 개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태극이 음양을 떠났다고 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道와 器의 나뉘짐이 한계가 없지 아니한즉 태극과 음양이 아무래도 일물이라 말하는 것은 불가할성 싶습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태극이 음양을 탄 것이 사람이 말을 탄

것과 같다’ 했은즉 결코 사람을 들어 말이라 해서는 불가합니다. 병이 중하여 할 말을 다 못합니다”(與一齋書, 하서전집 권11)

金氏는 비록 병이 위급하지만 그래도 이항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는 理가 곧 太極이고 곧 道이며 器는 곧 陰陽이고 器라고 한다. 理氣混合은 곧 태극이 음양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곧 形而上의 道와 形而下의 器의 不離이다. 하지만 混合不離는 양자 사이의 상호 의뢰하고 不可分離의 일면을 가리키고 또 不雜相分の 일면도 있다. 필경 理, 太極, 道는 氣, 陰陽, 器가 아니다. 不雜이란 理, 太極, 道와, 氣, 陰陽, 器가 二物로 相分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사이에 하나의 한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 李恒이 太極陰陽一物이라고 한 것은 羅欽順(1465-1547)이 “理氣爲一物”이라고 하여 그 사이의 한계를 없애버린 것과 같다. 김인후는 이항의 “太極陰陽爲一物”설을 반대하고 나흠순의 “理氣爲一物”설도 반대하며 양자를 一物이라고 할 수 없는 不雜說을 주장한다. 이것은 朱熹의 理氣, 太極陰陽, 道器의 不離不雜 사상과 서로 일치한 것이다.

김인후는 사람이 말을 탄 것으로 太極이 陰陽을 탄 것을 비유한다. 이것은 사람은 말의 主宰者와 支配者로서의 주인이고 말은 사람의 지휘, 조종, 부림에 복종하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사람이 말을 타고 一出一入하고 理는 氣를 타고 一動一靜하며 말은 사람의 걸음을 대체하는 도구이고 相依不離性을 가지고 있으며 相分不雜性도 가지고 있다. 만약 태극음양을 一物로 하거나 혹은 理氣를 一物로 한다면 사람과 말이 一物이 된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황당한 것이다. 理氣가 一物일 수 없는 까닭은 理氣가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옥이 생각하기를 천지의 사이에는 理와 氣일 따름인데, 理는 항상일 수 있지만 氣는 항상일 수 없고, 이는 하루도 없을 수 없으며 역시 일호도 빠지거나 이지러짐이 없으며 기는 消息 盈虛의 일제하지 아니함이 있으며, 기의 존재하는 곳은 理라고도 이룰 수는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이만 가리킬 수 없는 것입니다. 人事가 극진하지 못하면 기화가 이기는 것은 기화의 혹 가다가 그런 것이며, 사람이 능히 인사를 닦아 이루어 나간다면 인사가 매양 그를 이기고 기화는 용납되지 못하는 거이니, 理가 항상 있다는 것은 이를 이름입니다.(策 하서전집 권12)

천지 세계에는 오직 理와 氣가 있다. 理는 恒常적이고 無時不有하고 결함이 조금도 없는 존재이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하늘 운행 健하여 쉬지를 않고, 땅의 덕은 두터워 物을 싣었네. 진실한 이치는 그 사이에서, 낳고 낳아 억 만년을 뻗쳤느니라.(天行健不息, 載物坤德厚, 實理於其間, 生生亘悠久) 氣는 恒常적인 것이 아니고 盈虛變化하는 존재이다. 理는 恒常性, 普遍性和 圓滿性을 가지고 있는 반면 氣는 暫時性, 變化性을 가지고 있다. 氣의 존재가 理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不離에 나아가 말하는 것이고, 오직 理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不雜에 나아가 말하는 것이다. 인사가 未盡한 것은 氣화가 勝한 것이고 氣화는 惑然한 것이며, 人事를 닦아서 氣를 구제하면 人事가 勝한다. 氣의 消息과

盈虛는 不齊不常이고 理는 恒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理氣가 분별되므로 理氣 太極陰陽이 一物이 될 수 없지만 理는 또 氣화에 의거하여 萬物을 化生하기 때문에 ‘理氣混合’이라고 말한다. 理의 恒常性, 普遍性和 圓滿性으로 말하면, “천지의 사이는 이치 아닌 것이 없는지라 혼연한 전체가 物치고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바로 子思의 語大語小의 뜻이다.”(與盧寡悔論夙興夜寐箴解別紙 河西全集 11권). 子思의 語大語小의 뜻은 『中庸』에 기록된 바가 있다. “天地의 큼으로도 사람이 오히려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할진대 천하가 신지 못하며, 작은 것을 말할진대 천하가 깨뜨리지 못한다. 『詩經』에 이르기를, ‘술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는데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 하였으니, 上下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中庸之道가 其大無外하고 其小無內하여 費한 것이며 또한 극히 隱微한 것임을 의미한다. 천지가 博大하여도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 있다. 때문에 君子가 中庸之道가 크다고 말하면 천하에는 그것을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없고 그것이 작다고 말하면 천하에는 또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김인후는 中庸之道의 道를 天地 사이의 理로 비유하여, 그것은 博大하고 隱微하여 천하에는 그 어떤 물건도 理를 실을 수 없고 또 어떤 물건도 理를 파괴할 수 없으며, 理는 天上地下를 觀照하고 體察할 수 있어서 어떤 물건이든 理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는 普遍性을 가지고 있고 또 渾然全體의 完全性을 가지고 있다. 理가 恒常性, 普遍性, 完善性을 가진 까닭은 하늘이 사람에게 명하신 理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明德이란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命한 이치로서 사람이 그 이치를 얻어 마음에 갖춘 것이다. 그 命됨이 미상을 밝기 때문에 그 德됨도 또한 미상을 밝으며 그 體됨이 미상을 밝은 때문에 그 用됨도 또한 미상을 선한 것인 至善이라 이른 것은 밝음의 극치이다. 바야흐로 그 未發에 있어서는 寂然히 움직이지 아니하여 치우치거나 기대는 바 없음으로써 한몸의 주가 되나니 이른바 仁義禮智의 性이 그 체를 세워서 만 이치가 한 근원이란 것을 알 수 있고, 급기야 發해서는 느낌에 따라 응하여 들어지고 어긋나는 바 없이 천하의 일을 통한다”(大學講義跋, 河西全集 권11)

理의 가치적 근거는 하늘로서, 하늘이 사람에게 理를 명하여 사람의 마음 속에 갖추게 한다. 天命이 明德을 밝히고 그 體도善하며 用도 善하다. 至善에 멈추는 것이 明의 極至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理는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는 寂然不動한 것이고 不偏不倚하며 一身의 주재가 된다. 未發한 性은 곧 仁義禮智의 性이다. 이렇게 되면 그 本體를 확립할 수 있고 萬理의 一源 즉 이 本體가 體認된다. 그 已發에 미치면 천하에 感而遂通한다.

어째서 萬理가 一源인가? 어떻게 一源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른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의 道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容貌. 舉止. 衣食의 절차가 그 用을 달성하여 만물의 각기 지닌 이치를 볼 수 있다. 그 각기 지닌 이치란 곧

한 근원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루어 가면 통하지 않음이 없고 나가보면 있지 않음이 없나니 本然의 체는 순수하고 지선하여 처음에는 조금도 다름없으나 그 物에 命함이다”(대학 강의발, 하서전집 권11)

理가 發하여 天下에 通達하고 五倫의 道이든 백성의 일상 언행활동과 생활에 필요로 하는 衣食의 節度든 막론하고 모두 理의 체현이고, 萬物이 각각 하나의 理를 갖추는 것은 分殊이며, 萬物이 각각 갖추고 있는 理는 곧 一原之理이고 곧 理一이 된다. 이것이 곧 “理一分殊”이다. 이 一原之理는 하나의 本然之體로서 純粹하고 至善한 것이다. 形而上 本體인 理 자체는 明亮한 것이지만 理가 氣에 가려지고 知가 物에 의해 어두워지기 때문에 不善이 있게 되고 이 不善이 理가 되는 것은 形氣의 사사로움의 얽매임이다. 이것은 바로 理體氣用. 理本氣末 사유를 관찰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김인후의 理氣論은 不離不雜을 主導로 삼는다.

III. 심성지변(心性之辨)

理의 未發이 마음 속에 구비되고 理體가 至善한 것이 바로 心性 화제의 探求이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의 性에 대한 求索이 그것의 핵심 화제의 하나가 된다. 김인후가 『중용』의 첫머리 3구절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즉이 논하건대 仁義禮智의 德은 하늘이 명한 성이요. 人倫日用의 常은 성을 따르는 道

이며 그 形氣의 私를 버리고 본연의 正으로 돌아오는 것은 도를 닦는 教이다.”

(大學講義跋, 河西全集 권 11)

性은 心에 있다.

“마음은 본시 一身의 主宰인 것이요 사람이 그로써 주재를 삼은 연후에 주재하는 것은 아니되다. 오직 그 기가 쉬이여 物에 유혹되면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어 몸이 문득 주재가 없게 되는데 능히 敬으로써 바로잡으면 마음이 도로 주재하여 전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으로써 일신의 주재를 삼은 연후에 敬으로써 일심의 주재를 삼는다.’ 말한다면 마야호로 그 마음으로써 일신의 주재를 삼을 때에 장차 어느 곳에서 손을 쓰겠습니까. 주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신령하여 萬變을 주재하는 것이며 物이 능히 주재할 바 아니다. 그러므로 執持의 뜻이 있으면 곧 이 마음이 먼저 스스로 움직인 것이다.’ 라 하고 인하여 程夫子의 ‘敬으로써 안을 잡으려 하면 문득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들며 또 계속하여 말하기를 ‘대개 整齊하고 엄숙하면 속에 주가 있어 마음이 스스로 보존된다.’ 하였으니 그 ‘物이 능히 주재할 바 아니다.’ 하였은즉 오직 공경만이 가히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속에 주가 있어 마음이 스스로 보존된다.’ 라 일렀은즉 속에 주가 있다는 것은 敬을 두고 이름이 아니겠습니까.”(與盧寡悔論夙興夜寐箴解別紙, 河西全集 권 11)

이것은 김인후가 盧寡悔의 “군자는 반드시 이로써 일신의 주재를 삼는다 운운. [君子必以

心爲一身主宰云云]”에 대한 대답이다. 金氏는 사람이 主宰라고 여기면 主宰가 되는 것이 아니라 心은 본래 一身의 主宰인 것이다. 하지만 形氣의 섞임으로 인하여 外物의 유혹을 받아 心은 밖에서 달리게 되고 그래서 身이 主宰를 잃게 되며 敬以直內的 存養工夫를 통하여 放心을 구하고 心을 身의 主宰로 회복하게 한다. 心의 主宰가 敬以直內的 工夫를 통해야 하는 것은 形私之雜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私하면 반드시 偏하고 편하면 반드시 사하며 사하면 公하지 못하고 편하면 正하지 못하여, 一念의 가는 것이 그 사이가 터럭을 용납하지 못하지만 일을 해치고 정사를 해치는 단서가 실로 이에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을 응함에 있어 一毫의 사가 매이면 그 本然의 正을 얻지 못하여 능히 일신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上李太守書, 河西全集 권 11)

身과 外物이 접촉 왕래함에 있어서 털끝만큼 偏重이 있으면 당연한 규칙을 상실하기 때문에 重義經利하고 公私理欲이 분명해야 한다. 시에서 “도의를 중히 알면 功利는 경한거라 公과 私 理와 欲은 진실로 분명하이. 마음이 거칠며는 知가 항상 막히는 법. 膽이 용감하면 결코 소행을 의심않네.”(吟示景范仲明, 河西全集 권 6)라고 읊었다. 만약 心이 身의 主宰이면 心은 거울처럼 맑고 저울처럼 공평하며 絲毫의 偏私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일체 邪惡한 물건은 파고들 틈이 없게 되고 心이 身의 主宰인 것을 유지할 수 있다. 戒愼 恐懼하고 “本源을 涵養하여 그 精明을 이루어 이치를 궁구하는 근본으로 삼는 것은 진실로

敬의 한 글자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른바 敬이란 것은 마침내 한 마음을 主宰하고 明德을 밝히는 강령으로서 聖學의 시종이 되는 것이다.”(大學講義跋, 河西全集 권1) 涵養은 반드시 敬으로써 해야하고 敬은 本原之心을 涵養하는工夫로서 心이 身의 主宰가 되게끔 하여 偏私가 없게 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몸을 공경함으로써 어버이를 섬기고 마음을 공경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어진 사람이나 효자의 마음씀(用心)이 한가지일 따름이다.”(孝經刊誤跋, 河西全集 권1) 몸과 마음을 공경히 하여 부모와 하늘을 섬긴다. 이것은 仁人孝子の善心이다. 人性的 善惡은 天人之道이다. 김인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과 사람의 도는 動과 靜 두 가지를 넘어가지 않을 따름이다. 동은 陽이요. 정은 陰이니, 잇는 것은 善이요 이룬 것은 性이라 이로써 하늘의 도가 다한 것이요, 정은 虛요 동은 直이니, 고요해도 능히 느낌으로써 사람의 도가 다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항상 靜으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에 天命이 本然이란 것이 온전하여 動하면 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못 사람들은 항상 동에서 상실되기 때문에 物慾이 끼어들게 됨으로써 惡에 흐르기가 쉽다. 『周易』에 이르기를, ‘復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 하였으니 대개 천지는 物을 낳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는다. 乾卦가 부스러져 坤卦가 되어 모든 陽이 녹아 다하면 生生하는 이치가 혹 거의 종식이 될 터인데 冬至 날 子時의 晝에 한 양이 처음 동하면 그 동의 끝이 바로 이른 바 ‘천지의 마음’인 동시에, 萬化의 근원을 이에서 볼 수 있으며 선

악의 기미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다.”

(李至男字說, 河西全集 12)

하늘과 사람이 서로 動하고 陽이 動하고 陰이 靜하며 선을 잇고 性을 이룸으로써 天道를 다하고, 정이 虛하고 동이 直하여 사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人道를 다한다. 靜은 천명의 본연이고 온전하게 동하여 善이 된다. 사람들은 도에서 상실되어 물욕에 미혹되고 惡에 흐르게 된다. 시에서 읊기를,

“性이란 확실히 純粹한 거라
眞心은 矯揉가 절대 아닌걸.
다만 그 氣質이 拘曲한데다
外物의 고임에 거둠 홀리어.
淫聲 美色 이목을 어지럽히고
맛진 음식 코와 입을 마비시키니.
안일 방탕 제 정신을 갖지 못하고
동서로 미친 듯이 쫓아다니네.
明德은 날로 더욱 깜깜만 하고
寶鑑은 먼지 때에 희미해져서.
무진 무진 덮인 것이 굳어만 가니
고개 돌릴 용기조차 다시 못내네.
만약에 한번 생각 깨닫게 되면
여기서 곧 밝은 문이 열리고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잡관의 사이에도 손 놓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잡관의 사이에도 손 놓지 말고
日新에 또 일신으로 곧장 나아가
얕이 있으면 선뜻 지켜야 하네.
단단히 감아쥐면 堯舜이 되고
놓아 버리면 바로 桀紂가 되네.”

(別應和, 河西全集 권 2)

性은 본래 純善하고 氣質에 拘限되고 外物에 유혹을 받아 善性を 放失하였지만 오직一念에 깨달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면 繼善成性할 수 있다.

天人之道의 陰陽動靜消長 가운데서 만물 화생의 源頭, 始原을 體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人性 善惡의 端始가 微動하는 상태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만물이 화생하는 까닭과 인성 선악의 근원을 끝까지 밝히는 形而上 本體的 思議이다. 김인후의 理論 思辨的 추구는 生生之理, 萬化之源과 繼善成性を 서로 融突하게 함으로써 형이상의 天道가 하늘에 떠있어 고립되게 하지 않고 繼善成性の 인도에 떨어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人道の 繼善成性이 형이상 天道의 지탱을 잃지 않고 天人和合之道 즉 “天人之一致”의 道를 구성하게 한다.

김인후는 天道세계에 있어서 이항의 “太極陰陽是一物”설을 동의하지 않고 人道세계에 있어서는 노과화가 주장한 나흠순의 “人心道心是體用”설 즉 “道心寂然不動, 人心感而遂通”설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金氏는 “인심과 도심은 전적으로 動하는 곳에 나아가 말한 것이고, 태극과 음양은 이미 道 器의 구분이 있으니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을 듯하다.”고 말하였다. 太極과 陰陽은 形而上의 道와 形而下의 器의 분별이 있고 一物이 될 수 없다. 道心은 天理로서 순수하게 善한 것이고, 人心은 氣質로서 人欲이 있고 善도 있고 惡도 있기 때문에 오직 위태로운 것이다. “理는 天에 근본하고 欲은 形에 일어나니 공과 私가 서로 싸워 심령을 어지럽혀, 아무쪼록 자나깨나 보존하고 省察하며 戒懼하여 무시로 일깨워야

하느니라.”(示門人, 河西全集권7) 天理는 天에 근본하고 人欲은 形氣에서 일어난다. 天理와 人欲은 마치 공과 私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것이 消하면 그것이 長하고 그것이 消하면 이것이 長하며 오직 存養 省察의 用工만 있다. 克己復禮, 戒慎恐懼와 더불어 慎其獨하고 天理의 공과 人欲의 私를 분명히 하며 遏人欲 하고 存天理해야만 비로소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

IV. 인문 특색

김인후가 성리학계의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성리학자들의 信奉하는 朱子學의 입장과 관점을 견지하고 당시 성리학계가 열렬히 논의하던 화제 예를 들면 太極陰陽之辯, 四七理氣之辯, 心本一身之主宰之辯에 대하여 모두 정밀하고 상세하게 辨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계 많은 학자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簡潔하고 名聲이 밖으로 나가기를 구하지 않았다. 비록 논변에 참여하지만 말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명성이 밖으로 나가기를 구하지 않는 高風亮節, 淡泊名聲의 道德情操은 그의 爲人の 氣象風格이고 또한 그의 성리학 인문 특색 중 하나이다.

김인후는 명성이 밖으로 나가기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히 스스로 기미를 알고 의를 지켰다. (能自知微守義)” 이것은 또한 그의 성리학적 특색의 하나이기도 하다.

학술의 造詣가 높고 깊어서 明正하고 精密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爲人과 爲學의 功夫가 深奧하고 淸風大節이다. 剛과 柔가 아울러 濟

하고 剛이 허리를 꺾지 않고 柔가 辱됨을 받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爲人의 도덕품격이기도 하다. 이런 도덕품격이 성리학에 체현되어 자기의 독립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설령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하더라도 독립적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이런 不懼의 학술 용기내지 威武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만 학술상에서 지능적인 창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그의 학술의 인문정신의 가치를 체현하였다.

그 다음은 그의 학술의 務實의 인문정신이다. 김인후는 “그 마땅히 힘을 바는 오직 실지에 있음”(與友人書, 河西全集 권11)을 주장한다. 만약 학자들의 학문이 務實이 아니고 재능이 適用이 아니며 학문이 明體가 아니고 “단지 駢儷做對의 作을 배워 세상에 이름을 얻었던 것이라면 도덕 정조의 배양과 인격 이상의 향상에 유익한 바가 없을 것이다.

그는 大學之道는 책 속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博文을 넓히 상고하여 일에 따라 체험 관찰해서 실지로 그 공을 이룩함”(大學講義跋, 河西全集 권11)에 있다고 하였다. 실용에 치중하지 않고 만약 책 속의 지식만 치중한다면 空談에 흘러가기 쉽다. 그는 학문은 致用해야 함을 주장하고 “經을 궁구하는 것은 장차 그로써 用을 이룩하자는 것인데, 진실로 章句의 末에만 마음을 執滯한다면 또한 무엇 때문에 學을 하옵니까”(策, 河西全集 권12)라고 말하였다. 致用은 본이고 章句는 末임을 의미한다. 책 속의 장구는 일종의 지식이고 지식을 얻는 것은 치용에 있다. 치용할 수 없으면 책 속 장구는 여전히 책속 장구이고 자신의 물건으로 될 수 없고 空虛로 변할 수 있

다. 치용은 바로 篤行에 있다. 그는 시에서 읊기를 ‘배움과 물음과 또 생각과 분변 篤行은 자못 앎을 먼저 해야지, 제 몸을 닦음에서 미뤄 나가면 應接이 다 적당함을 얻게 되나니. 이게 바로 학을 하는 요령인지라 儒者들은 마땅히 힘써야 하오”(讀白鹿洞規, 河西全集 권2)라고 하였다.

그는 ‘學이란 知行이 아울러 나아가고 인팍이 서로 닦아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董仲舒가 말한 “王者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 만백성을 바르게 하고, 만백성을 바르게 하여 사방을 바르게 하고, 사방이 바르게 되면, 먼 데나 가까운 데나 다 바름에 귀일되지 않음이 없으며, 邪氣는 그 사이에 침범할 수 없다.”(策, 河西全集 권12)와 같다. 知識은 實行하는 데 있고 內聖과 外王은 서로 修爲하는 데 있다. 이 ‘正’자는 곧 致用과 實行의 뜻을 내포한다. 치용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옳을 수 있고, 옳하지 못하면 어떻게 正氣를 張揚할 수 있겠는가. 金氏가 學以致用을 중시하고 篤行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당시 성리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김인후의 名聲外出을 구하지 않고 知微守義하며 務實致用하는 인문정신은 그의 성리학 특색을 구성하였다. 김인후는 詩가 유명한데 그의 『河西先生全集』에서 시가 큰편폭 차지하였다. 시로써 뜻을 말하는 것(詩言志)은 그의 思想 情感의 流出이고 理論 思惟가 詩歌化된 표현이며 그의 성리학의 현저한 인문특색이기도 하다.

河西의 생명철학

金基鉉(전북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1. 자연의 생명정신

하서의 철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생명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다양한 변주의 사유와 실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자라면서 학자로서 자연의 생명정신과 인간의 도덕생명, 그리고 그것의 함양과 실천 등을 그의 사유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뒷날 그의 문묘 배향을 촉구하는 유생들의 한 상소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바깥사물에 마음을 쏟지 않고 생명의 이치를 묵묵히 직관하였습니다.”(『年譜』).

그는 다섯 살 적에 생파겹질을 한 겨풀씨 벗겨내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는, “그 생명의 이치를 보고 싶어서”(『年譜』) 그러했노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의 이와 같은 마음은 어릴 적 한 때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자로 성장하면서 유기체적 자연관 속에서 자연의 생명정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로 발전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남달리 많은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다음의 시는 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을에 서리 맞아 시드는 게 애석치만
봄이면 땅에 솟는 푸르름이 어여쁘네
모름지기 생명의 뜻을 불지니
일찍이 한 순간도 멈춘 일이 없으라
(『示奇伯顧』)

하서에 의하면 자연의 생명정신이야말로 모든 존재와 생성의 한 중심에서 만물의 생장쇠멸에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인간이나 만물은 이러한 자연의 생명정신을 제각각의 존재형식 속에 자기화하고 개별화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은 모두 결코 허무한 존재들이 아니며, 제각기 우주적 본질을 갖는 가치 충만한 진실체들이다. 그들 존재의 중심에는 자연의 생명정신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서는 인간의 이념과 의무를 여기에서 발견하였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신은 물론 만물의 존재의 미와 가치를 성취시켜주어야 할 우주적 과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뜻을 “참자아의 완성과 타자의 성취[成己成物]”라는 이념으로 묶어 다음과 같이 읊는다.

(전략)

나를 위하 여겨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네
참자아의 완성과 타자의 성취에
공부를 병행하여
하늘과 땅 사이 우뚝 서서
만물의 생성발육 도와야 하리
「題敬岑上人卷端」

2. 도덕생명

하서는 만물의 근원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생명정신을 직관하면서, 인간과 초목금수의 본질적 차이를 그것의 개폐 여부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양자가 자연의 생명정신을 공히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의 행사방식에 차이를 드러낸다. 초목금수가 그들의 생명정신을 폐쇄적으로 행사하는 ‘自利(자리)’의 존재인데 반해, 인간은 그의 생명정신을 개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利他(이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개방적 생명정신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다. 그것은 생명 손상의 현상을 보면서 ‘측은지심’의 발로와 함께 그 생명을 구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낼 것이며, 생명부정의 현상 앞에서 ‘수오지심’을 드러내면서 그 요인을 제거하려 할 것이며, ‘공경지심’으로 자타간에 생명적 질서와 조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며, ‘시비지심’으로 생명의 정사(正邪)를 가려 바른 생명을 성취하려 할 것이다. 사랑[仁]과 정의[義], 예의[禮], 지혜[智]는 바로 이러한 개방적 생명정신을 가치범주화한 것이다. 그는 이 네 가지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실현을 평생의 과제로 여겼다.

하서는 정치사회의 현장에서 정의의 실현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것은 당시 여러 차

례의 사회로 인해 뒤틀리고 무너져 버린 도덕기강을 다시 세워 생명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기묘사화의 선비들을 신원하고 복권시킬 것을 중종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부정과 폭력으로 암울해진 죽음의 사회에 정의를 확립하여 생명을 소생시킬 관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무능에 더하여 당시 정치사회의 난맥상을 목격하고는 그는 자신의 뜻을 접고서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로부터 2년 뒤 일어난 을사사화는 그 즈음의 정세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하서의 은둔은 그가 정의의 이념을 포기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의 “은둔은 진리와 도의를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양광위노론(佯狂爲奴論)」)이었다. “진리와 도의는 본래 몸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요/ 지극히 가깝기가 눈앞의 속눈썹과도 같은 것”(「차채중길문계시운(次蔡仲吉聞鷄詩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치를 떠나 일상의 삶 속에서 진리와 도의를 진지하게 실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나라 한퇴지(韓退之)의 권력 굴종적 태도를 비판하는 그의 시를 읽어보자. 그것은 무엇이 삶을 가치있게 해주는지를 의미심장하게 전해준다.

우주 안에 우뚝 선 남아 대장부
도덕을 지녔으니 다시 무얼 구하리오
세상살이 궁핍과 영달은 때가 있으니
한 몸의 좁고 주름 걱정할 일 아니네
뒤통목 강한 살림도 즐거움이 족한데
그대 어찌 급급하게 한 몸 위해 일 꾀했나

(중략)

백이는 서산 아래 굽주려 죽었어도
높은 이름 천추에 넘칠 듯 떨어치네
벼슬길에 쓰임 버림 남의 손에 달린 것을
나 홀로 그대 위해 마음이 가이없네
名利를 쫓아 사는 세상의 사람들아
원망 허물 그만두고 각자 제 몸 닦으라.
『독창려삼상서(讀昌黎三上書)』

하서는 을사사화 이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죽기 전날 가족들에게, “을사년이후의 관작을 기록하지 말 것”(『年譜』)을 유언으로 남긴다.

사회로 권력을 장악한 윤원형의 부정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그와 같이 밝힌 것이다. 인물평가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율곡의 다음과 같은 평은 이러한 율곡은 정신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선생의 올바른 거취는 이 나라에 비교될 만한 사람이 없다.” “맑은 물 위의 연꽃이요, 화창한 봄바람에 비개인 뒤의 달과도 같다.[清水芙蓉 光風霽月]”(『年譜』)

3. 수행정신

인간은 개방적인 생명정신을 천부적으로 타고났지만, 한편으로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자기 속에 가두어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갖는다. 하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양자, 즉 개방적인 생명정신과 폐쇄적인 이기의식의 길항 속에서 무수히 다른 사람됨의 모습을 빚어낸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닦고[修] 기르는[養]’는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시를 읽어보자

공부란 물 거슬러 배젓기와 같은 것
노를 한 번 늦추면 이내 뒤로 밀려나네
다잡지 않으면 건너기가 어려우니
배주릴 때 밥을 먹듯 목마를 때 물 마시듯
『吟示景范仲明 其三』

그가 여기에서 강조한 ‘공부’는 글공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글을 읽고 외우며 쓰는 공부에서는 그것을 잠시 그만둔다해서 “노를 한 번 늦추면 이내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이 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체험했을 ‘공부’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심신의 수행노력이었다. 이는 생명 자체의 이기의식을 다스려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개방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러한 공부는 문자 그대로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하는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수행정신을 한 순간이라도 놓으면 곧 존재의 타락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존재의 향상과 타락의 의미를 읽었을 하서의 치열한 공부정신을 엿본다.

하서는 이를 마음공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생명정신의 개폐여부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만물의 생성 발육’을 도울 수 있는가 하면, 금수처럼 자기 안에 갇혀 일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기도 한다. 마음을 부단히 성찰하고 또 부지런히 닦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읊는다. “온갖 이치 마음 속에 밝게 있게 있으니/ 항상 마음 살려야지 태만해선 안 된다네.”(『시문인(示門人)』).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는 그 방법을 외경[敬]의 정신에서 찾았다. 그것은 “마치 깊은 연못에 다가가듯, 살얼음 위를 걷듯”(『시경(詩

經』), 삶과 세계에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나서는 태도를 말한다.

하서는 외경의 정신에서 도덕생명을 배양시켜주는 힘을 발견하였다. 그는 말한다. “외경은 생각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다잡아 인간의 본원을 함양시켜주는 도리입니다.”(『與盧寡悔夙興夜寐箴解別紙』) 달리 말하면 외경의 정신은 바깥으로 내달리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정화시켜주고, 인간의 존재본질과 참삶의 의미를 성찰 실현케 해줄 요체다. 마음은 거기에서 사물에 흔들리거나 부침하지 않고 고요히 세계의 한 중심에 들어설 것이다. 참 자아와의 만남도 여기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사물과 세계 또한 이에서 비로소 그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처음부터 성현이 되기까지 하루도 외경의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對策』)

외경의 정신은 물론 내면의 각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삶의 세계를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덕생명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는 말한다. “참다운 앎은 일상의 행동세계를 벗어나지 않는다.”(『次花潭讀易詩韻 其二』). 이는 그의 학문이 실천을 매우 중시했음을 일러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외면했던 것은 물론아니다. 그는 당대의 석학들이 모두 인정하는 성리학의 대가였다. 하지만 그는 관념세계에 자족하지 않고 ‘인간의 본원’을 규명하여 실현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목표로 두었다.

사람들이 칭송해온 그의 문학세계를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는 문장을 지엽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는 옳는다. “모름지기 뿌리를 재배해야만/ 꽃잎과 가지에 생명이 뻗친다네.”(『示景范仲明』). 이 ‘뿌리’

란 외경의 정신으로 배양해야 할 ‘인간의 본원’을 뜻할 것이다. 문학의 ‘잎과 가지’도 거기에 서만 생명의 힘을 얻는다. 허약한 ‘뿌리’에서 뻗어 나오는 ‘잎과 가지’는 이내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당시 학자들 중에는 그의 문학정신을 깊이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그의 한 제자는 다음과 같이 선생을 변호한다. “사물을 유희하는 것은 선생의 천성이 아니오, 술을 마심은 회포를 부치는 것일 뿐이다.”(『年譜』). 즉 그에게 시와 술은 ‘회포를 부치는’ 방편일 뿐이었다. 그러면 그의 ‘회포’는 무엇이었으며, 왜 꼭 시와 술로써 풀려했을까? 그 해답을 우리는 그가 “痛飲을 하면서 붓을 잡아 쓴” 다음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해엔 離騷經에 한의 마음 가득더니
오늘 아침 송사로 눈물에 옷깃 젖네
다른 시대 흥망이 나와 무슨 관계랴만
저절로 공감하여 부질없이 슬픈 노래를
「家狀」

시대의 질곡 속에서 사회 정치의 이상실현을 차단당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소경(離騷經)의 작자 굴원(屈原)과 송나라의 충신 악비(岳飛)의 충정에 그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공감하면서 ‘한의 마음’과 ‘옷깃 젖는 눈물’로 쓴 이 시는 그의 ‘회포’가 (참 자아의 완성과)타자의 성취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가 어려서부터 익히고 추구해온 사회귀원의 이념이 당시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겪었을 고통을 시와 술로 풀었던 것이다. 시는 어두운 사회에 깨어 있는 지성의 아픔을 정화(승화)시켜주는 의의를 갖는

다. 시를 포함하여 예술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것은 아픈 현실을 괄호치고 세상을 관조하게 해 주는 훌륭한 기제다.

실제로 그는 시인으로서 뛰어난 심미의식을 가졌으며, 제자들에게도 심미의 세계를 찾아 누릴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한다. “학문을 하는 데에는 또한 반드시, 때때로 沂水에 목욕하고, 또 沝淸의 풀들이 어우러져 푸르른 뜻을 몸소 깨달아야만 진보할 수 있다.”(『行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수의 목욕’은 공자의 제자 曾點의 말로써, 세상사를 벗어나 소요음영하는 뜻을 밝힌 것이요, ‘뜨락의 풀들’은 周濂溪가 집 沝淸에 자라나는 풀들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뜻을 갖고 있다 하여) 그대로 놓아두고 즐긴 고사를 끌어다 쓴 것이다.

한편 술이 “번뇌를 풀어주고 멍한 마음을 깨트려주는 [釋惱而破吝 退溪]”는 효과를 갖고 있음은 사람들이 익히 경험하는 대로다. 그런데 하서가 술을 즐겼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몸가짐을 크게 흐트러트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사관은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술을 즐기고 시를 좋아했으며 마음이 너그러워 남들과 다투지 않았지만, 그의 속뜻은 실로 예의와 법도를 지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자 하였다.”(『朝鮮王朝實錄』). 이는 ‘예의와 법도’를 아는 도의정신이, 아니 그 이전에 외경의 삶의 정신이 그를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기축이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4. 타자성취의 이념

앞서 살핀 것처럼 하서가 도덕생명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했던 학문은 본질적으로 남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의 학문은 일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타자의 성취’가 또 하나의 학문 목표였다. 아니 그는 ‘참자아의 완성’과 타자의 성취에 공부를 병행’한다 했지만, 사실 그에게 양자는 별개의 이원적인 것이 아니었다. ‘타자의 성취’는 도덕생명을 개방하는 ‘참자아’의 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재상에게 말한다. “仁者는 천지만물을 자신과 한 몸으로 여겨 온 천하의 질병과 아픔을 모두 자신의 것처럼 절실하게 받아들입니다.”(『上右相書』) 이처럼 ‘참자아’는 생명개방의 물아일체 의식 속에서 남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성취시켜주고자 한다.

하서의 ‘타자 성취’의 이념은 단순히 지식인으로서 갖는 사회적 책무의식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만물을 그의 존재 안에 아우르는 그의 생명정신의 자연스러운 발로였으며, 우주적 무게를 갖는 그의 존재의 실천적 의지요 명령이었다. 생명정신의 폐쇄 속에서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하여 남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에게는 자아의 위축과 손상을 의미하였다.

그는 그것을 수족마비의 질병에 비유하였다. 자기 안에 갇혀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남들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은, 마비된 수족을 제 몸처럼 느끼지 못하는 중풍환자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질병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열어 남들을 아우르고 자신의 생명정신을 개방하여 남들을 성취시켜 주려는 노력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랑(仁)’

이다. 인자는 자타간 대립과 단절 속에서 생기는 존재의 마비를 모른다. 그는 몰아일체 의식 속에서 남들과 생명을 공감하고 상통하면서 그들의 성취를 도우려 한다. 하서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규모로 강조해 하지않았던 「서명(西銘)」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인자는, “만민은 나의 형제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民吾同胞 物吾與]”이라는 우주적 대아의 심흥으로 인간과 만물을 품안에 깊이 아우르면서 그들의 삶을 돕는다.

하서의 철학은 이렇게 하여 인간애와 더 나아가 생명애의 이념을 그 정점에 세운다.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을 향해 열려 있는 그의 마음은 개미 한 마리, 풀 한 포기조차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몰아일체적 사랑의 눈빛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영상을, ‘뜨락의 풀들이 어우러져 푸르른 뜻’을 헤아리면서 그옥이 관조했을 그의 모습에서 본다. 그리하여 그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인간과 만물이 함께 화해롭게 어우러지는 생명세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읊는다. “남아의 평생 뜻이 요순(堯舜) 성인 향할진대/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생성 도와야지.”(「次景范韻」)

하서는 ‘타자성취’의 제도적 실천현장인 정치에 좌절을 겪고 은둔의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강학과 교육을 통해 이루려 하였다. 우리는 그 결실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당시 호남사회에 하나의 학풍을 세운 사실에서 확인한다. 더 나아가 “청수부용에 광풍제월(淸水芙蓉 光風霽月)”과도 같이 맑고 고결한 그의 덕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들의 혼탁한 삶까지 밝혀줄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함양할까 하는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몫이다.

(2010년 6월 24일 조선호텔)

경 축

2010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 수상



우리 지역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인 대동문화재단이 지난 12월 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2010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7회째인 이 상은 문화유산 보호 분야 ‘봉사·활용 부문’ 단체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입니다.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이 상을 수상한 대동문화재단(회장 조상열)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강연원고〉

업적으로 다시 파악한 하서

윤 사 순(고려대 명예교수)

(1) 탄생 500주년을 맞는 하서(河西, 金麟厚 1510-1560)는 그 동안 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거의 전모가 드러난 듯이 여겨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계의 연구가 과연 하서의 인물과 업적 전체를 얼마나 정확히 밝혀냈는지 필자로는 의문이다. 그 의문의 근거는 하서의 업적에 대한 기존 연구의 미흡함을 필자 스스로도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 있다. 이에 이 자리가 연구 발표를 위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필자로는 이 기회에 그의 철학 등의 기존 연구에 조금이나마 새로 보탬이 될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하서를 높이 평가한 예는 허다하다. 그 가운데 정조가 그를 “해동의 염계(濂溪)이고, “호남의 수사(洙泗, 곧 공자)”라 한 것이 으뜸가는 극찬이다. 그 다음은 울곡(栗谷 李珥)이 “출처의 바름이 이 나라(海東)에서 더불어 비교할 이가 없다”면서, 청수부용(淸水芙蓉) 광풍제월(光風霽月)에 비유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문묘배향에 즈음한 치사거나, 벼슬길의 진퇴 같은 행동의 일면만을 근거로 내린 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업적 전체를 고려하여 내린 평가로는 이보다 우암(尤庵 宋時烈)의 것이 대표적이다. 우암은 하서를 가리켜,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두루 갖춘” 점에서 ‘이 나라(東方)에서 으뜸’이라 하였다. 이는 지식과 행동에서 조선시대의 가치기준으로 별 하자가 없는 ‘선비’가 곧 하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업적 전체를 바탕으로 인물을 평가하던 그 시대의 대체적 범주가 ‘문장’ ‘절의’ ‘도학’임도 여기서 드러난다. 필자도 하서의 전체업적을 문학과 정치사회 그리고 철학의 분야로 가름하여 검토하련다.

(2) 하서의 문학 분야 업적은 한시(漢詩)의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는 특히 공자(孔子)와 회암(晦庵 朱熹)을 경모하는 내용의 격조 높은 작품이 있고, 소쇄원(瀟灑園)의 영시 중 물줄기의 근원에 비유한 ‘현상의 근원’을 찾는 작품도 눈에 띈다. 이것들은 그의 성리학자다운 모습을 확인케 하는 작품이다. 영롱한 경관을 그려 낸 시구에서는 그의 음풍영월 이상의 자연친화 의식도 읽힌다.

그러나 문학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나, 필자로는 하서의 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가사문학(歌辭文學)’의 업적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시대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구사한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글의 쓰임새

높임' 만으로도 크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시대의 학자들, 특히 성리학을 익힌 그 연배의 일부 학자들에게서 찾아지는 우리말과 우리글(한글)의 '독특한 뜻과 맛과 멋'을 다듬어 작품화한 가사들에는 한시로는 도저히 나타내지 못할 점이 많다. 순수한 우리말에 깃든 '옹골찬 뜻'과 예술적 심미감의 '아릿다움'을 직감케 하는 데에서 가사는 한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하서의 가사에 담긴 이런 점들이 그의 한시와 더불어, 오히려 그 이상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의 가사문학 가운데, 한 예로 「임사수의 원통한 죽음을 슬퍼함(悼林士遂冤死)」 같은 단가(短歌)는 부도덕한 정치행태에 신진사류가 희생되던 '선비사회의 비통함'을 대변한 글로 기억될 만하다. 하서는 이 글로 해서, 그 시대의 병폐를 문학으로 형상화 하여 역사에 고발한 '지성인의 몫'을 행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상을 표현한 글의 형식, 이른바 "문이재도(文以載道)" 형식은 성리학자들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문학을 통한 사상의 표출' 효과를 거두는 장점을 지닌다. 그 효과는 곧 문학화한 '사상의 사회적 영향'으로서, 정치적 영향까지 크게 거두는 것이다. 하서의 문학이 그 시대 그 사회의 '현실에 끼친 영향'이 이런 점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소홀히 여겼던 것 같다. 그의 문학에서는 이런 점에 앞으로 더 눈길을 돌려야겠다는 것이 필자의 소감이다.

(3) 하서가 보인 '절의(節義)'의 부면은 어떤가? 그 절의는 율곡의 지적대로, 관가(官衙)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서 그의 엄격성을 주로 일컬어 왔고, 우암 또한 그 점을 높이 샀다. 그 중

은 증례가 인종에 대한 하서의 글은 '의리실천'의 모습이다. 그는 34세 때(중종38, 1543) 세자시강원 설서로 세자(효, 뒷날의 인종)의 경사(經史) 공부와 도의(道義) 교육을 담당하면서, 그 세자와 친숙함이 각별하였다. 그 친숙의 정도는 세자의 목축화를 받을 정도였다. 그런 세자가 이듬해 등극하였지만, 겨우 재위 8개월 만(1545년)에 타계하였다. 이에 하서는 사직하고 귀가한 뒤로, 별세할 때까지 여러 관직의 임명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다시는 관료 취임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의리를 지킨 절의행위에 해당한다. 인종을 향한 이 절의의 굳건함이 사림(士林)에서 그를 높인 하나의 요인이다.

이 밖에도 넓은 의미의 절의로서 또 다른 '의리(義理) 실천'이 그에게서 찾아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시대 선비사회인 사림(士林)에 끼친 그의 업적이다. 하서는 일찍이(18세 때) 호남의 대표적 선비 신재(新齋, 崔山斗)를 찾아뵈 뒤로, 한훤당(寒暄堂, 金宏弼)을 사숙하고, 퇴계(退溪, 李滉)와 벗하였다. 이 정도만으로도 그의 사회적 위상이 사림계임이 짐작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그는 '후기사림파(後期士林派)'로 분류된다. 그 사림파 학자로 남긴 하서의 업적 중에는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피해당한 인물들을 위한 신원소(伸冤疏)가 으뜸이다.

일찍이 홍문관 수찬(중6품)으로 있을 때(35세, 1544), 하서는 상소를 통해 정암(靜庵 趙光祖)을 비롯한 기묘제현의 해원(解冤)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기묘년에 사화의 극형을 내린 책임자는 바로 중종이었다. 하서는 다른 왕도 아닌 바로 그 중종에게 기묘년의 극형이 무죄한 선비들에 내린 '억울한 형벌', 곧 '잘못된 처벌이었

음'을 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기묘제현의 '변호'에 해당하는 이 상소는 실로 그 때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목숨을 걸 정도의 결기에 찬 것이었다. 양심적인 '위민정치를 위한 의리'의 실천이라면, 그 자신도 사회의 희생자 대열에 함께 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고선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그가 감행했던 것이다. 그런 행위로 해서, 이듬해 그 청원이 인중에 의해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하서는 그 당장 실질적인 '사림의 대표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국의 선비들이 하서를 숭모하는 까닭이 바로 그의 이 뛰어난 기개로 보여준 '의리구현'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가 문묘(文廟)에 배향될 만큼, 사림에서 역사적으로 숭앙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적을 논하는 한, 앞으로는 하서의 이런 올곧은 강골의 '의리실천' 측면이 더욱 더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4) 하서의 도학(道學)은 어떠한가? 벼슬살이를 단념한 뒤로, 하서는 도학 곧 성리학의 연구에 심취하였다. 그 결과 48세 때에는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등을 지었다. 이로 보아, 우주의 변화를 탐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물아일체관(物我一體觀)'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탐색하는 데에 이 무렵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듯하다. 운명 같은 것과 연결된 분야의 '거대 담론'이라 할 형이상학에 그는 한동안 침잠했었다고 짐작된다. 한편 정주의 성리설을 계승하던 입장이었던 만큼, 50세 무렵 그는 정주 성리설에 어긋난 일재(一齋 李恒)의 이론과 소재(蘇齋, 盧守愼)의 이론 등에 교정의 글을 보낸

다. 이런 맥락에서 하서는 후배인 고봉(高峰, 奇大升)의 이론들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봉은 그 무렵 퇴계와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리기론적 해석을 가지고 논변을 시작하였는데, 이 문제로도 하서는 고봉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던 것 같다. 그 때, 사단 칠정의 이 해문제는 원래 추만(秋巒, 鄭之雲)의 「천명도(天命圖)」 제작에서 비롯되었다. 그 「천명도」에 쓰여진 추만의 '사칠리기해석(四七理氣解釋)'에 퇴계의 교정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고봉과 퇴계의 논변이 야기되었다. 바로 그 추만과 하서 또한 교류했던 터라, 하서도 그 자신의 「천명도」를 지어 추만에게 주었다.

다 아는 대로 고봉과 퇴계의 논변은 "사단 칠정을 각기 리발(理發) 기발(氣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인한 내용의 논변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하서의 「천명도」에는 사단 칠정의 엄격한 구분이 없고, 그것들에 대한 리기론적 해석은 더욱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천명도」나 그 이론이 조선시대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까닭도 이런 특징에 있었다. 따라서 하서의 「천명도」에 담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느냐가 여기서 문제로 떠오른다.

'천명'이란 용어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이 경우엔 『중용』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근거한 '성(性)'으로서, "성즉리(性卽理)"의 사유에 따라 '리(理)'로도 대응된다. 이 때 인간의 '성'은 구체적으로 사단으로 드러나는 '인의예지(仁義禮智, 四德)'의 성, 또는 거기에 신(信)을 더한 오상(五常)을 가리킨다. 사덕으로 불리는 네 가지 본성(인의예지)은 물론 맹자 이후 인간의 선성(善性)으로 지목되었듯이, 인간이 선천

적으로 본구한 ‘도덕적 선(善)의 근거’로 믿어졌다. 이로써 「천명도」의 제작 의도가 ‘오륜적 도덕(五倫的 道德)’의 근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칠정은 욕(欲)에 포섭되는 ‘인간의 정 전체’로서, 선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연적 정을 가리킨다. 그런 만큼 퇴계가 칠정 이외에 사단을 가리켜 ‘리발’ 입을 애써 강조한 이면에는 유가의 도덕, 곧 당시 ‘오륜 도덕’의 필연적 성립을 교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발현을 강조하지 않는 하서의 「천명도」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외에 따로 있지 않는데다가, 칠정마저도 ‘희노애락애오욕’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다. 칠정은 ‘욕’에 포섭되어 있는 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터에 선과 악은 『중용』에서 밝혔듯이, 욕구의 출동이 ‘절도에 맞음(中節)’이 곧 선이고, 그에 ‘지나침(過)’과 ‘모자람(不及)’이 악이라 가름된다. 하서는 바로 이에 근거하여 본성에 입각한 도덕보다, 오히려 욕구의 조절에 의한 ‘자율적이고 중용적인 윤리’를 강조하였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 당시의 환경으로는 ‘오륜 도덕의 합리화’가 요구되던 시대였다. 그런 까닭에, 시대적 요청에 더 부합하던 퇴계 이론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하서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소홀시 된 하서의 이론은 무용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의 이론 같은 것은 본성의 본구에 회의하는 한편 자연적 정감의 순수성을 믿으면서, 그 정감의 욕구에 대한 조절을 통해 선한 도덕 행위를 하려던 실학시대에 크게 빛을 볼 이론이었다. 이 점은 서계(西溪 朴世堂)와 다산(茶山, 丁若鏞) 등의 도덕설이 바로 본성의 필연적 발현을 부정하고, 선의지에 대한 자율적 노력과 경험적 학습을 역설하던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자명해진다.

필자의 추정으로, 실학자들에서는 퇴계의 이론보다 오히려 하서의 것이 더 타당시 될 이론으로 대우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서의 「천명도」에 입각한 윤리설도 유학의 도덕철학으로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이론임이 확실하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오백년 전 이 땅에 태어난 하서는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그 시대를 이끄는 데 다방면으로 크게 공헌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그의 시대를 ‘문예로 다듬고’, ‘도의로 정화하고’, ‘정치로 발전시킨’ 인물로서 충분히 기억될 만하다. 그의 업적에 대한 보다 더 충실하고 정확한 검토가 행해질수록, 업적에 기초한 그의 인물 평가 또한 격상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이 그에 대한 필자 한 사람만의 예단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필암서원 集成館 에서 25차 하계 강연회 열리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원장 강연

필암서원 정화사업 완공을 축하하고 하서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본회 하계 강연회가 지난 7월 7일 집성관(교육관)에서 열렸다.

박래호 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佑東祠에 향배하고 백록동규를 낭독한 뒤 오인균 본회 회장, 김진웅 본손 도유사, 김양수 장성군수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택수 전 도유사가 김양수 군수에게 글씨를 증정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장이며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원장이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는데 선비 정신의 계승과 실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필암서원 선비 교육 활성화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어서 金正洙 전 울김대총회장이 <「上李太守書」 「誅沙門論」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강연 내용 산양회보 15집 참조) 하서 선생의 민본주의 인도주의 정신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선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했다. 이 내용이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에 <퇴계 하서 고봉>으로 논평되기도 했다.

한편 하서학술재단에서도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1, 2, 3, 4집 120질을 참석자에게 증정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총회에서 집성관 운영계획 논의하다

11월 2일 임원회의 열려

필암서원 교육관 운영 계획, 산양회 법인화 추진, 2010년 정기총회 준비, 산양회보 16집 편집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임원회의가 11월 2일 17시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집성관 운영과 교육에 대한 김재수 부회장의 의견서 발표를 듣고 논의하였다. 교육관 운영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컴퓨터에 능숙하고 유교문화에 조예가 깊은 직원 배치, 필암서원 홈페이지 운영, 선비학당 교수진 확충과 자원봉사자 확보, 도산서원, 월봉서원, 다산연구원 성공 요인을 수용할 것을 제의하고, 항상 뒤따라갈 수만은 없으므로 하서를 사랑하는 모임 개설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을 제안했다. 집성관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하서 선생의 사상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하자>에 두고 ①유교 기초 윤리 교육, ②체험 활동 교육, ③유교 윤리 실천 교육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회장의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관광과와 장성군수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산양회 법인화는 장성군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박래호 총무가 장성군청과 장성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2010년 정기총회는 12월 16~17일 경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고려대학교 윤사순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산양회보 16집은 하서 탄생 500주년 기념 특집으로 꾸미기로 했다.

산양회 법인화 추진된다

7인 실무소위원회 추진 후 다각적 방안 모색

2010년 8월 2일 17시 예원식당

참석자 : 오인균 회장, 신두천, 장원석, 김재수 부회장, 김용숙, 김진웅 고문,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장수, 이충원

2010년 8월 2일 17시 예원식당에서 산양회 임원회의가 열렸다. 박래호 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오인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산양회 법인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김진웅 도유사는 “집성관의 교육은 필암서원에서 해야 하고 운영 관리는 장성군에서 해야 한다. 필암서원 산양회가 필암서원을 후원하면서 학술 활동을 해왔으므로 이번에 법인으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인균 회장은 집성관에서 처음으로 하계 학술 발표회를 했는데 장단점과 갖추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재수 부회장은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운영 및 교육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김장수 편집위원은 “서울 중심으로 하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의 참여를 끌어들이 하서 연구회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은 체험 학습 위주로 해야 한다. 법인화 일을 해본 경험 이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해야 할지, 재단법인으로 해야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학술 모임 인지, 교육 모임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전산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호 총무는 “군에서도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법인화를 긍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인균 회장은 전체 임원들의 의견을 물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인화를 추진할 실무진을 신설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된다고 제의하여 오인균 회장, 박래호 총무, 김재수 부회장, 양희택 재무, 김장수, 오종일, 이충원으로 7인 소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河西 탄생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성료 10월 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河西 김인후선생의 도학사상과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열린 하서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작년 長城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10월 8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 열려 하루종일 진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河西선생 500주년 기념 문화축전 柳承國 대 회장은 「하서 김인후선생 도학사상의 本領과 現代的 의의」라는 기조 강연에서 “미래는 정신과 물질이 中和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인간상이 요청된다. 真理의 주체성인 人極을 강조한 것이 하서선생의 天命 사상이다. 하서와 율곡의 도학 사상은 조선 후기 민족사에서 양대 학파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민족 자주적식 식촌 추정신이요 다른 하나는 민족자강을 위한 실학파다. 이러한 하서 사상은 성숙한 인간,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中國人民大學 공자연구원, 국학연구원 張立文 원장은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이라는 주제로 天命圖 비교, 理氣의 不離不雜, 心性

之辨, 人文特色에 대해 강연했다.

張立文 원장은 河西 사상의 人文特色으로 해서 김인후가 學以致用을 중시하고 篤行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당시 성리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名聲外出을 구하지 않고 知微守義하며 務實致用하는 인문정신은 그의 성리학의 특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계명대 李東熙 교수의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
 - 대만 東海大學 哲學系 蔡家和 교수의 「韓儒 金河西 對於程朱 理學的 承繼」
 - 中國 安徽大儒學研究中心 解光宇 교수의 「論 河西詩的 意境以及 哲理詩」
 - 日本 쓰꾸바 대학 佐藤貢悅 교수의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처세」
 - 부산 教育大 李相益 교수의 「하서 김인후의 행적과 후세의 평가」
 - 中國 廣州大學 趙楠楠 교수의 「하서 김인후와 조선 중기의 성리학」
 - 연세대 趙麒永 교수의 「河西의 孝賦에 대한 고찰」
 - 성균관대 崔一凡 교수의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 연구: 退溪 · 栗谷과 대비하여」
 - 서울대 마일런 헤지매넥 교수의 「求道: 김인후와 곤경에 빠진 16세기 조선의 유학」
- 등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근래에 보기 드물 만큼 깊이 있는 연구 발표가 진지하게 이루어져 하서 연구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하서 500주년 기념 문화축전 대회장인 류승국 원장이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가 하서 시상의 현대적 의의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모든 발표자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져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는 바람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河西 탄생 500주년 기념 서예 초대전

10월 21~26일 대동갤러리에서 열려

河西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서예 초대전이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주 大東갤러리에서 열렸다.

河西선생이 인종으로부터 하사 받은 묵죽도, 초서친필, 千字文 등 선생의 유묵을 영인하여 전시하였고, 유명한 서예가들이 선생의 주옥같은 한시를 쓴 작품과 선생의 시를 화제로 한 문인화, 선생의 시조를 한글로 쓴 글씨 56점을 전시하였다.

광주의 전시가 끝나고 11월 12일 순주의 강암서예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전북의 서예가들이 관람할 수 있게 했다.

강암서예학술재단 송하철 이사장, 전북도내 향교 진교 및 유림, 유명 서예가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서 탄생 5백주년 '문화축전' 가져

필암서원 류승국 원장 대신 정운염 道掌議 축사

하서 김인후 선생 탄생 500주년을 맞아 다양

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하서문화축전이 열렸다.

지난 10월 22일 군민회관에서 장성문화원 주최로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해 유성중 도산서원장, 김동현 대로서원장, 군의원, 문중 및 유림 관계자, 군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축전 기념식이 개최됐다.

필암서원서 열린 고유제에 이어 기념식에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약사를 비롯해 하서선생 일대기를 담은 박애리 명창의 판소리 발표와 시창 공연, 퓨전국악 등 흥겨운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축사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뛰어난 점은 크게 도학, 절의 문장 세 가지로, 하서 선생의 절의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며 “이를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삶의 지표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중 도산서원장은 “문묘에 배향된 18현인 중 한분인 김인후 선생을 모신 문불여 장성의 선비 정신 실천이 남다르다”면서, “하서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문화축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하서문화축전은 하서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재정립하고,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전국 성독 대회, 국제학술 강연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져왔다.

오는 10월 26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에서는 열리는 서예 초대전에는 하서 선생이 인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인종묵죽도 인영본을 비롯해 초서친필 등 하서 선생의 시, 유묵, 글 등 작품 56점이 전시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필암서원에서 하서선생 등 장성의 인물에 관해 관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서 유교 특강을 실시하고, 하서 선생의 문집과 시집을 비롯해 50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등 출판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서문화축전은 하서 정신을 통한 새 시대 가치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남 유교문화의 독창성과 전통성을 널리 알리고, 하서 정신과 유산의 문화관광 자원화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서 탄생 5백주년 필암서원 추향제 거행 漢詩 백일장과 聲讀大會도 가저

올해로 탄생 500주년을 맞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는 추향제가 8월 24일 장성 필암서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추향제에는 최근덕 성균관 관장, 박형재 성균관 부관장, 오인균 산양회장,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 김진웅 문전공파 도유사, 김양수 장성군수 등 200여 명의 유림과 종친들이 참석했다. 추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 비관을 바치는 전폐례, 술잔을 바치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헌관 최근덕 성균관장은 제를 마친 뒤 淸節堂에서 「하서 선생 사상과 후세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강론했다. 최관장은 “하서 선생은 선비의 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성리학의 기초를 다져 한 단계 높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우리들에게 전해줬다.”며 “그의 사상은 500년을 넘어 후대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선생은 성리학 발전에 큰 업적을 세웠고 현재에도 선생의 학문적 결실과 사상을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 한시 백일장 시상식

9월 24일 필암서원에서

제8회 전국 한시 백일장 시상식이 9월 24일 추향제를 마친 후 청절당에서 있었다.

〈慶祝 河西先生 탄생 500주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紙上 白日場에 792명이 응모하여 부산의 서정민씨, 대구의 광경순씨, 순천의 박형재씨가 심사한 결과 장원에 부산의 금융두씨, 차상에 광주 신형철씨, 대구의 김점문씨, 차하에 부산의 이종영씨, 충남의 박우환씨, 울산의 김석환씨가 수상했다.

제1회 전국 성독(聲讀)대회 개최

하서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로 제1회 전국성독(聲讀)대회가 9월 24일 추향제를 지낸 후 청절당에서 열렸다. 개인부 4팀, 단체부 8팀이 참여한 성독대회에서는 효경간오발, 조신신생사 등 하서 선생의 시문을 성독하였다. 백원철, 박래호씨 등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장원에 유안중씨, 금상에 유창중씨, 은상에 이정숙, 유해근씨 동상에 김민영, 이정희, 김용진씨가 상을 받았다.

박래호 총무 김해시청 초청강연

박래호 총무가 8월 20일 김해시청의 초청을

받아 〈검손과 인내가 곧 인성교육의 꽃〉이라는 주제로 시민교양강좌를 했으며, 11월 23일에는 김해향교의 초청을 받아 〈유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필암서원 集成館에서 한국국학진흥원

5차 포럼 열려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과 실천 문제 논의

한국국학진흥원 김병일 원장은 「한국적 가치의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제5차 포럼을 11월 13일 필암서원 집성관(교육관)에서 가졌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도현 교수의 「현대 한국 사회의 윤리적 상황과 개인주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의 「유교의 위학지요-5개의 해협을 건너 일상의 ‘습理’에 정박하기」, 중앙대학교 유권중 교수의 「유교 수양론과 현대 사회의 접점」이라는 발제 발표가 있었다.

세 교수의 발제를 듣고 광주교대 박연호 교수, 전남대학교 김경호 교수, 이윤희 퇴계학 연구원의 지정 토론에 이어 박원재, 박정환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 현대 유교가 직면한 현실과 유교를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 문제를 토론했다.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일행은 집성관에서 1박하면서 세 분 발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앞으로 한국 유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오인균 산양회장, 박래호 총무, 김재수 부회장, 김진오 문정공파 총무가 환영하였다.

入會를 환영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金相老	50,000
全州大學교수	吳鍾逸	50,000
光州 南區	李泳一	50,000
光州 北區	金南田	30,000
光州 北區	李文鎬	80,000
長城 北二	金載高	50,000
長城 珍原	文映朱	30,000
長城 黃龍	金圭司	30,000
長城 黃龍	金聖朱	30,000
長城 黃龍	金莊煥	30,000
長城 黃龍	金文洙	50,000
담양	金鍾南	30,000
보성	梁東燮	30,000

◆ 신입회원 ◆

金光秀 경남 거창鄉校 前典校
丁彩鎬 전남 同福鄉校 前典校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전남도청 문예기금	2,000,000원
(주)삼양사	2,000,000원
산양회 총무朴來鎬	100,000원
대전宋俊彬	100,000원
서울金東炫	140,000원

2010年 9.24(陰曆 8.17)

筆巖書院 秋享祭 獻誠金 內譯

順番	獻誠金 內譯	金 額
1	金鎮雄(蔚金都有司)	100,000
2	한정진(광주북구문화원)	50,000
3	윤주남 (祝官) 김제시	100,000
4	宋俊彬(南澗祠 會長)	100,000
5	김문수(本孫)	200,000
6	산양회	200,000
7	金炳孝(本孫)	30,000
8	金正俊(황룡중 교장)	50,000
9	金才洙(재향군인회 회장)	50,000
10	고장산중중(계파)	50,000
11	安平君(장성교육장)	50,000
12	車庄坤(장성축협장)	50,000
13	鳳巖書院	50,000
14	泗山祠(장성 북이면)	30,000
15	金泳豐(장성문화원장)	30,000
16	成均館	300,000
獻誠金 合計		1,440,000

順番	화 환	기증자
1	봉축 추향대제 光州鄉校	典敎 朴泰根
2	봉축 추향대제 光州鄉校財團	理事長 奇世樂
3	봉축 추향대제 全南鄉校財團	理事長 林元澤
4	봉축 추향대제 全南鄉校 慕聖會	會長 尹章炫
5	봉축 추향대제 咸安館 廣주시 본부	會長 丁南鎬
6	봉축 추향대제 光州市 청년유도회	會長 金京寧
7	봉축 추향대제 蔚山金氏 大宗會	會長 金達朱
8	봉축 추향대제 仁村 記念會	會長 현승중
9	봉축 추향대제 東亞日報社	社長 김재호

- 알 림 -

본 회 2010년 정기총회 및 26차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先生 : 尹絳享 (고려대 명예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농협 302-0137-2969-31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재수)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2-0137-2969-31)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6712-8881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鎮雄씨(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絳享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淸靄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춘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 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淸靄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춘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 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춘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 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 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춘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러러 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정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춘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の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춘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유도대학장이 「하서선생의 학문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 (金東炫, 율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